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

근대 일본의 '카라유키상' : 그 실태와 이동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Karayuki-san' in modern Japan : their actual condition and migration network

지도교수 류교열

2013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문화학과

박경은

本 論文을 朴瓊銀의 國際地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원장 최인택 인
위 원 신동규 인
위 원 류교열 인

2012 년 12 월 7 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dCollection

목 차

영문초록 ····· iii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 ····· 3
3. 사료 ····· 5

II. '카라유키상' 출현의 배경 ····· 7
1. 일본의 내적 요인 ····· 7
(1) 전통적 가족질서와 '이에(家)' ····· 7
(2) 일본의 대외 인식 ····· 9
(3) 九州 북서부의 지리적 특성 ····· 11
2. 동남아시아의 성비불균형 ····· 14

III. '카라유키상'의 이동 네트워크 ····· 17
1. 일본 국내 ····· 17
(1) 지역적 분포 ····· 18
(2) 인적 구성과 '카라유키상' 모집의 방법 ····· 20
2. 일본 국내외 ····· 24
(1) 지역적 분포와 인적 구성 ····· 24
(2) 해외 도항의 방법과 경로 ····· 27
(3) '카라유키상'의 '매매' ····· 30

IV. 싱가포르의 '카라유키상' ····· 34
1. 일본 유곽의 형성 ····· 34
2. 公娼制와 '카라유키상'의 관리 ····· 39
3. 일본 유곽의 遊客 ····· 46

V. 결론 ····· 52

참고문헌 ····· 54

부록 ····· 57

Collection

표

<표1> 1902년 8월 재싱가포르 '카라유키상'의 출신 ····· 12

<표2> 홍콩을 출발하여 해협식민지에 도착한 중국인 성인 여성 수 ····· 14

<표3> 1871년~1911년 싱가포르의 인구 ····· 15

<표4> 1905년 일본 娼館(公娼)과 '카라유키상'의 수 ····· 37

<표5> 싱가포르의 일본인, '카라유키상', 일본 娼館의 추이 ····· 37

<표6> 1899년 칸당 커바우 병원에 입원한 여성의 수 ····· 44

<표7> 1871년 싱가포르의 민족별 인구 ····· 46

<표8> 20세기 초 일본 유곽의 요금 ····· 48

그림

<그림1> 1828년 싱가포르 도심 계획 ····· 35

<그림2> 1917년 싱가포르의 유곽 ····· 36

dCollection

'Karayuki-san' in modern Japan : their actual condition and migration network

PARK, Kyeung-eu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rea and Cultur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It is a common knowledge that from the beginning of Meiji to Showa period a number of Japanese women went over to overseas and were involved in prostitution industries. It is said that more than 20,000 of these women so-called 'Karayuki-san' spread from East Asia to Southeast Asia, America and Africa continents in the early 1910s. Among these regions, Singapore had the largest demand for 'Karayuki-san' in Southeast Asia. Furthermore, it acted as a hub to send 'Karayuki-san' out to various places in Southeast Asia, Australia and even to Africa.

What made this phenomenon possible was the power which pushes 'Karayuki-san' out from Japan, the power which pulls them toward the place where 'Karayuki-san' were in demand, and the network which gathers, distributes, and moves them.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on 'Karayuki-san', but they tend to place 'Karayuki-san' in the place of departure or arrival and analysis the push and pull factors. However, it seems to be difficult to place 'Karayuki-san' inside the border of Japan

dCollection

or a place where they resided. Some of 'Karayuki-san' left their hometown and settled down abroad for several years and then came back, but some of them remigrated to a different place where had demand for these Japanese women. Thus, it can be said that 'Karayuki-san' were cross-borderal.

Based on the above point of view, this thesis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 of 'Karayuki-san' from a social historical perspective focused on the network which enabled 'Karayuki-san' to migrate. This is to that shedding light on the process of their migration while sublating to place them inside a certain region. This is also expected to help to understand that 'Karayuki-san' emerged and migrated from multiple relations, and to avoid to understand them as a product of a single nation.

KOREA MARITIME UNIVERSITY
1945
한국해양대학교

Collection

I. 서론

1. 연구목적

明治 초기부터 昭和 초기에 걸쳐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해외 각지로 나가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카라유키상'이라 불리는 그녀들은 가깝게는 동아시아, 그리고 멀리로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대륙까지 1910년대 초반 2만 명 이상이 각지에 분포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1] 그 중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내 '카라유키상'의 최대 근거지이자 그녀들을 동남아시아 각지를 비롯한 호주,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재 송출한 곳이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이전인 1870년대부터 '카라유키상'은 싱가포르로 도항하여 최성기에 공식적으로 600여 명, 비공식적으로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카라유키상'이 이시기 해외로 도항하여 싱가포르를 비롯한 각지에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일본에서 그녀들을 밀어내는 힘과 그녀들이 활동한 해외에서 그녀들을 끌어들이는 힘,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녀들을 모으고 분배하여 이동시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였다. 기존에는 대체로 일본 국내와 해외에서 '카라유키상'이 정착한 곳 등 각 지역 중심적인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이들 지역에서 그녀들을 밀어내는 힘과 끌어들이는 힘을 면밀히 밝히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카라유키상'이라는 존재는 일본이나 그들이 정착한 해외의 어느 한 국가의 틀 속에 자리매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녀들은 일본을 떠나 해외의 한 곳에 도항하여 그곳에 정착하였다 일본으로 돌아오기도 하였지만, 자신들의 수요가 있는 또 다른 곳으로 재 이동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카라유키상'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카라유키상'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 그녀들의 실태를 사회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곧 '카라유키상'을 일본이나 해외의 어느 한 지역에 위치시키는

1) 山室軍平, 『社会廓清論』, 警醒社書店, 1914, pp.356.

dCollection

것을 지양하면서, 이 두 곳 사이에서 그녀들이 이동하는 과정을 의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단지 '카라유키상'을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낸 산물로서가 아니라, 보다 광역적인 차원의 다자간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이동한 존재로서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라유키상'이 동남아시아로 도항하기 시작한 1870년대부터 싱가포르에 대한 일본의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지는 제1차 세계대전 기까지를 중심으로 하여 첫째, '카라유키상'이 출현한 배경을 일본과 동남아시아 양측에서 살펴보고, 둘째, '카라유키상'이 해외의 한 거점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한 네트워크를 일본 국내와 일본 국내외에 걸쳐 고찰, 마지막으로 싱가포를 필드로 하여 '카라유키상'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싱가포르를 주요 필드로 삼은 것은 싱가포르는 '카라유키상'의 최대 거점지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카라유키상'을 동남아시아 각지나 호주, 아프리카까지 재 송출하는 일종의 허브(hub)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카라유키상'의 네트워크를 고찰함에 있어서 싱가포르와 같이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선이 많은 허브를 우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용어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카라유키상'이란 九州 북서부 지방에서 사용된 말로서, 해외를 뜻하는 '카라(唐)'와 가다를 뜻하는 '유키(行き)'가 합해진 말이다. 당시에는 종사하는 노동의 업종이나 남녀에 관계없이 해외로 돈벌이를 나간 사람을 뜻하였다고 한다.[2] 즉, 시미즈 하지메 (清水元)가 지적하고 있듯이 여성에 한정한 것이거나, 반드시 성매매 여성이라는 업에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3] 그러나 현재 일본 근대사 안에서는 "해외에 나가 性을 팔았던 일본인 娼婦"를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변형되었다.[4] 그녀들이 활동했던 당시 일본 국내의 신문, 서적 등에는 '카라유키상'이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고 대신하여 '海外醜業婦', '密航婦', '娘子軍' 등의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영자 신문에서는 'Japanese Prostitute'로 쓰이고 있다. '카라유키상'이라는 용어는 본래의 의미가 변형 혹은 축소되었다는 점, 실제 활동한 시기와

2) 森崎和江, 『からゆきさん』, 朝日新聞社, 1977, pp.17-18.
3) 清水元, 『アジア海人の思想と行動』, NTT出版株式会社, 1997, p.95.
4) 스즈키 유코, 이성순·한예린 역,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젠더』, 나남, 2010, p.304.

Collection

장소에서는 '카라유키상'이라 불리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대체할 보다 적당한 용어를 찾지 못하였고, 자료와 사료의 한계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해외에 나가 성매매에 종사한 일본 여성이라는 의미로 '카라유키상'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카라유키상'의 존재는 1970년대 모리사키 카즈에(森崎和惠)와 야마자키 토모코(山崎朋子)와 같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논픽션 저서가 출판되면서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5] 특히 야마자키 토모코의 『산다칸 8번 娼館』(『サンダカン八番娼館』)이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고, 이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며 일본 전역에서 '카라유키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카라유키상'의 생애사를 바탕으로 국가에 의해 인권이 무시되고 희생된 여성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다. 일반적인 '카라유키상'의 이미지(국가와 남성에 의한 폭력 하에 놓인 존재)가 형성된 데에도 이들의 연구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젠더사 분야에서 나아가 1980년대 이후에는 사회사나 경제사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카라유키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경제사에서는 그동안 젠더사적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카라유키상'과 일본 유곽의 경제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시미즈 히로시(淸水洋)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영국령 말라야를 주요 필드로 하여, 일본의 동남아시아를 향한 경제적 진출 속에서 '카라유키상'의 경제적인 역할을 고찰하고 있다.[6] 테라미-와다(Motoe Terami-wada)는 마닐라의 일본 커뮤니티 속에서 일본 유곽의 설립, 발전, 폐지의 과정을 그리며 그것의 경제적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7]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카라유키상'과 일본 유곽의 영향력

5) 森崎和江, 앞의 책, 山崎朋子, 『サンダカン八番娼館』, 文藝春秋, 1987.
6) 淸水洋·平川均, 『からゆきさんと経済進出』, コモンズ, 1998, Hiroshi Shimizu, 「Karayuki-.san and the Japanese economic advance into British Malaya, 1870-1920」, 『Asian Studies Review』, Vol.20, No.3, 1997.
7) Motoe Terami-Wada, 「Karayuki-san of Manila: 1890-1920」, 『Philippine Studies』, vol.34, no.3, 1986.

dCollection

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회사 분야의 대표 연구자인 워렌(James Warren)은 그가 밝히고 있듯이 1870년부터 1940년까지 싱가포르의 '카라유키상'과 '아쿠(중국인 성매매 여성)'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8] 현재까지 해외의 한 지역에서 '카라유키상'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보다 더욱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밝힌 연구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본 논문 역시도 '카라유키상'의 실태를 논함에 있어 상당 부분 이 연구의 도움을 받았다. 이외에 야스다 리에(安田利枝)는 '자파유키상'[9]과의 연관 속에서 '카라유키상'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모두를 단지 비참한 여성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민노동자의 하나로 인식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10]

이상은 모두 국외의 대표적인 연구로,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생활한 '카라유키상'을 다루는 연구들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동남아시아로 도항한 일본 여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선에 일본 유곽이 형성되고 일본의 공창제가 유입되는 과정을 다룬 다수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창제의 유입과 실시를 일본이 조선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과정 중의 초기 형태 중 하나로서 파악하고 있다.[11]

이상의 연구 중 젠더사적 연구는 역사 속에서 잊혀져가던 '카라유키상'을 재조명하고, 그들에게 가해졌던 남성과 국가의 폭력을 밝힌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후의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카라유키상'을 단순히 수동적인 희생양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도 이러한 흐름과 함께 하고 있으며, 사회사적 고찰을 통하여 '카라유키상'의 다양한 양상과 실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라유키상'을 연구사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

---

8) James Warren, 『Ah ku and karayuki-san: prostitution in Singapore, 1870-1940』,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9) '자파유키상'이란 '카라유키상'에서 비롯된 말로, 일본으로 이주하여 성산업에 종사하는 동남아시아(주로 필리핀)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10) 安田利枝, 「「からゆきさん」再考」,『嘉悦女子短期大学研究論集』, 第35巻 第2号 通巻62号, 1992.

11) 송연옥, 「대한 제국기의 <기생단속령><창기단속령>」, 『한국사론』 40, 1998, 양미숙, 「개항기~1910년대 부산의 유곽 도입과 정착과정」, 『지역과 역사』 24호, 2009,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 조선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외 다수.

dCollection

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야마자키 토모코는 '카라유키상'을 '일본의 저변 여성사'에, 시미즈 히로시는 '일본의 대싱가포르 경제사'에, 워렌은 '싱가포르의 사회사'에 위치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카라유키상'을 일본이나 해외의 거점지에 위치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 국가의 틀 속이 아닌 일본과 '카라유키상'을 받아들인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들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카라유키상'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3. 사료

'카라유키상'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그녀들의 실태를 고찰하는 데 있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사료에 대하여 소개해 두고자 한다.

'카라유키상'이나 그녀들을 모집하고 '매매'하는 작업을 담당했던 업자들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사료는 많지 않다. '카라유키상'은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기록을 남길만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카라유키상'의 자서전과 같이 그녀들이 직접 남긴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의 성매매업과 관련된 자들 중에도 스스로 기록을 남긴 자는 무라오카 이헤이지(村岡伊平治) 한 사람뿐인데, 그가 남긴 자전의 진위에 대하여 일찍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12)]

위와 같이 '카라유키상' 관련 사료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長崎와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신문, 각각 『鎭西日報』와 『The Straits Times』을 주요 사료로서 사용하였다.

『鎭西日報』는 1873년 長崎에서 발행된 『長崎新聞』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長崎新聞』은 1876년 『西海新聞』으로 개칭된 후 1882년 『鎭西日報』로 개칭되었다. 현재까지의 '카라유키상' 연구에서『鎭西日報』는 다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福岡에서 발행된 『福岡日日新聞』과 『門司新報』가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카라유키상'의 출신이 長崎縣과 그 인근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가장 많은 '카라유키상'을 송출한 港이

12) 村岡伊平治, 『村岡伊平治自傳』, 南方社, 1960.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은 山崎朋子, 앞의 책, p.16, 矢野暢, 『日本の南洋史觀』, 中央公論社, 1979, p.131 참고.

Collection

長崎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長崎에서 발행된 地方紙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Straits Times』는 1845년 싱가포르에서 창간된 영자 매일 신문으로,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이기도 하다. '카라유키상'이 활동했던 당시 해협식민지[13]의 가장 주요한 신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직까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사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Straits Times』를 포함하여 현재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검색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 기타 싱가포르의 신문들도 함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들 신문은 보도의 객관성에 한계가 보일 수 있으나, 정부 기록, 구술 기록 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시 '카라유키상'이 처해 있었던 실태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성병의 확산과 관련하여 영국의 식민지와 영국 간에 교환된 서신, 20세기 전반기에 일본 및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동남아시아 관련 서적 등을 사료로 사용하였는데, 보다 자세한 설명은 관련 사료를 인용할 때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13) Straits Settlements. 1826년 말라카 해협에 면한 페낭, 말라카, 싱가포르를 합하여 만들어진 영국 식민지의 명칭.

Collection

II. '카라유키상' 출현의 배경

동남아시아에 '카라유키상'이 처음 나타난 것은 1870년대로 일본이 근대화의 길로 들어선 明治 시기 초기이다. 이보다 200여 년 앞선 17세기에 이미 일본인이 동남아시아로 도항하여 거주한 경험이 있었으나, 다수의 젊은 여성이 성매매라는 특정한 직업에 한정하여 도항하는 것은 明治 시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4] 본 장에서는 이시기에 '카라유키상'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이들이 동남아시아로 향한 원인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일본의 내적 요인

(1) 전통적 가족질서와 '이에(家)'

'카라유키상'이 출현한 배경을 고찰함에 있어서, 그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일본의 가족은 흔히 '이에'라는 관념으로 표현된다. '이에'란 원칙상 혈족(양자 포함)으로 구성되는 가족이 그 家産·家業·家名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생활하는 조직이다.[15] '이에'는 종종 '일본의 가족'이라고 이해되는 경우가 있으나, 인류의 사회 집단으로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가족'과는 달리 일정한 조건에 의해 형성된 일본 문화 특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의 핵심은 '이에'의 계승, 즉 '이에'를 영속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다.[16] 따라서 '이에' 하의 모든 가족원은 '이에'의 영속을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14) 16세기 후반 화인 상인들이 동남아시아 각지로 출항하는 것이 허락되자 일본 상인은 그들과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출항하는 일본 배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동남아시아 각지의 港市와 정권 소재지에는 일본인 거주구가 생겨났다. 가장 많았을 때 필리핀에 3,000명, 샴(태국)에 1,5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하네다 마사시 저, 이수열·구지영 역,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선인, 2012, pp.123-124.)

15) 스즈키 마사유키 저, 류교열 역,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2005, p.70.

16) 스즈키 마사유키, 앞의 책, pp.212-213.

Collection

전통적인 ‘이에’의 개념은 1898년 메이지민법에서 전면으로 법제화되었다. 메이지민법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이에’에 소속될 것을 규정하여, ‘이에’를 국민 파악의 기본 단위로 하였다. 나아가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家督상속과 장남단독상속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가장과 맏아들, 즉 남성의 권한을 강화시켜나갔다.[17] ‘이에’는 중세부터 일본 사회의 근저에 자리잡아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이에’의 안정적인 영속으로 규정하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법제상으로 명문화되면서 점차 ‘이에’ 내에서 남성의 지위를 상승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하의 가족구성원, 그 중에서도 여성 구성원의 역할을 ‘카라유키상’의 출현 배경과 연관시켜 아래의 사료를 보고자 한다. 야마자키 토모코의 『산다칸 8번 娼館』에 등장하는 기타가와 사키(北川サキ)은 자신이 ‘카라유키상’이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 내가 외국에 가게 된 것은 딱 10살이 되던 해였다. 야스키치 오빠도 점점 젊은이가 되어 가는데, 사람들은 논 한 평도 없는 남자는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했고, 오빠에게 시집오는 여자도 없었다. 그러면 너무나도 오빠가 불쌍해서 나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서든 오빠를 남자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중략) 야스키치 오빠는 내 앞에서 이렇게 양손을 잡고 ‘제발 외국에 가줘’라고 부탁했다. 나는 오빠를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응, 외국에 갈게’라고 대답했다.[18]

1906년 『鎮西日報』의 한 기사도 “南高来郡 三会村의 이와사 이네(32)라는 자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密航婦가 되어 호주에 도항한 그 후 십 수 년 간 醜業을 하여 그간 오빠인 이와사 키치타로(41)에게 4천5백 엔의 돈을 송금하여 오빠는 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19]

이들 사료에서 소녀들은 오빠를 위해서, 혹은 1913년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The Straits Times』지의 한 기사와 같이 “부모에 대한 효심과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카라유키상’이 된 것을 알 수 있다.[20] 이것은 곧 ‘이에’ 하에서 이

17) 김영, 「일본의 ‘이에(家)’와 여성」, 『일본연구논집』 제28호, 2008, p.286.
18) 山崎朋子, 앞의 책, pp.75-76.
19) 『鎮西日報』, 1906.8.25.
20) 『The Straits Times』, 1913.9.26.

Collection

소녀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이에'의 영속을 위하여 각각의 역할을 해야 했고, 근대로 들어선 이후에는 '이에' 내에서 남성의 권한이 강화 되면서 점차 소녀들에게 요구되는 희생이 커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도항이 가능하게 된 근대 이후 '카라유키상'이 출현하게 되는 데에 이와 같은 배경이 일정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보다 강제력을 띨 수 있는 국가적 차원, 정부적 차원의 논의를 통하여 '카라유키상'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대외 인식

'카라유키상'의 전성기는 러일전쟁 전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로, 이 시기의 시대적 배경이 그녀들의 출현에 끼친 영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제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외 팽창을 위해서 明治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어떻게 하면 보다 '원활'하게 자국민을 해외에 移植 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근대 일본의 계몽 사상가이자 明治 정부의 논리적 대변자 역할을 하기도 했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人民의 移住와 娼婦의 돈벌이"라는 제목의 글을 1896년 1월 18일 자신이 창간한 『時事新報』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그 일부를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전략) 안의 醜態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국가의 체면에 관계한다고 하지만, 娼婦의 醜態가 정말로 국가의 체면에 관계하는 것이 되려면, 이것이 안에 존재하는 것도 그 체면은 이미 더렵혀진 것이다. 안에서는 公行을 허가하면서 外出을 금지하는 것은, 속되게 말하면 악취 나는 것에 뚜껑을 덮어 냄새가 새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냄새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것과 같다. (중략) 人民의 해외 移植을 장려함과 관련하여 특히 娼婦의 外出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중략) 移住를 희망하는 자는 당분간 딸린 식구 없는 독신자가 많던지, 혹은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부족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부인의 돈벌이가 人民의 移住와 반드시 相伴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公然하게 허가하는 것이야 말로 得策이다. (후략)[21]

dCollection

위의 글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적극적으로 '娼婦의 外出'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논리는 일본 내에서 '醜態(성매매)'를 허가함으로써 이미 국가의 체면이 더렵혀졌고, 이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娼婦의 外出'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를 허가하는 것, 즉 公娼制는 일본에서 17세기 전반부터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22] 德川 막부가 일정한 장소에 성매매업을 격리시켜 관리한 것에서 기원한 일본의 공창제는 근대라는 시기에 돌입하면서 유럽의 근대적 공창제를 모델로 하여 재편성되었다.[23] 일본의 근대 공창제는 단지 일본 내의 성매매를 허용하고 관리하는 기제로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여성을 해외로 내보내는 논리의 근거로서도 사용되기에 이른다. 이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상기의 발언이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이 해외 팽창에 다소 현실성을 갖게 된 청일전쟁 직후 윗글을 발표하고, 일본인의 해외 移住와 移植의 발전에 있어 단신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娼婦'의 '外出'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明治정부의 대변인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의 발언은 단지 개인의 생각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상기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 시기 일본 내에서 활발히 논의된 소위 '南進論'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南進論'이란 간단하게 말하여 '南' 즉,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제도 등을 일본의 利益圈으로서 파악하고, '南'으로의 진출을 정당화하는 외교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하여 타이완과 펑후제도, 그리고 랴오둥반도를 할양받았지만 그 직후 '삼국간섭'으로 인해 랴오둥반도를 반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북으로 진출할 거점을 잃게 되자 일본 내에서는 '南進論'에 힘이 실리며 '北守南進論'이라는 용어 또한 정착하게 되었다. '南進'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리한 시대적 상황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24]

---

21) 『福澤諭吉全集』, 第15卷, 岩波書店, 1931, pp.362-364.

22) 室町 막부가 교토의 집창화 된 성매매업소에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본 공창제의 시발점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 「일본 중세 성매매에 대한 고찰」, 『동북아 문화연구』 제10집, 2006, p.358)

23) 후지메 유키 저, 김경자·윤경원 역, 『성의 역사학』, 삼인, 2005, p.93.
江戸의 吉原유곽(1612년), 大阪의 新町유곽(1627년), 長崎의 丸山유곽(1639년), 京都의 島原유곽(1641년)이 각각 이 시기에 새롭게 설립되거나 이전되어 집창·격리된 형태의 유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dCollection

앞서 살펴본 “人民의 移住와 娼婦의 돈벌이”라는 기사, 그리고 ‘南進論’의 부흥은 일견 ‘카라유키상’의 탄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로 도항한 ‘카라유키상’과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발언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타이완이나 조선, 혹은 ‘關東州’로 일본 여성을 내보는 데에 명분을 제공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 후 ‘南進論’이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동남아시아를 향한 일본의 본격적인 진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도항한 ‘카라유키상’을 일본인의 移植과 관련짓기는 힘들다. 일본의 적극적인 동남아시아 진출은 제1차 세계대전 기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직후인 1913년부터는 동남아시아 내에서 가장 많은 ‘카라유키상’을 수용했던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 차츰 일본 유곽을 廢娼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으로 유입되는 ‘카라유키상’이 줄어들고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송환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南進論’과 ‘카라유키상’도 관련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대외 인식은 ‘카라유키상’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동남아시아로 향했던 ‘카라유키상’의 직접적인 출현의 배경으로서 거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임을 지적해 두고 싶다.

(3) 九州 북서부의 지리적 특성

동남아시아로 향한 ‘카라유키상’과 관련하여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출신 지역이 九州 북서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鎭西日報』 1902년 10월 11일자에서는 1902년 8월말 현재 싱가포르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카라유키상’을 다음의 <표1>과 같이 출신지 별로 구분하고 있다.

24) 矢野暢(1979), 앞의 책, p.22, p.52.

dCollection

<표1> 1902년 8월 재싱가포르 '카라유키상'의 출신

출신 縣	명	출신 縣	명
長崎	187	島根	7
熊本	96	岡山	5
福岡	32	千葉	2
山口	29	静岡	2
佐賀	19	大阪	1
広島	18	京都	1
大分	16	神奈川	1
愛媛	15	埼玉	1
鹿児島	8	기타	155
兵庫	8	계	611
和歌山	8		

(출전: 『鎮西日報』 1902.10.11. 기사를 참고로 정리)

위의 표를 보면 1902년 총 611명의 '카라유키상' 중 30% 이상이 長崎縣 출신이고, 그 다음으로 熊本縣 출신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의 외교 사료를 통하여 1889년 12월 말 싱가포르에 재주하고 있는 '카라유키상'의 출신 縣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144명 중 출신자가 가장 많은 縣이 長崎(112명, 77.7%)이고, 그 다음이 熊本(19명, 16.9%)이다.[25] 당시의 일본 신문에서도 "長崎는 본시 密航婦의 産出이 풍부한 지방으로 유명하다. 天草 島原 등의 産物은 이 지방에서 密輸出을 하고 있다.", "해외를 순항하면 어느 곳이든 일본 長崎 방언을 쓰는 여자가 나가 있다"[26]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長崎縣과 그 인근 지역이 '카라유키상'의 주요 출신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카라유키상'의 출신지가 九州 북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열악한 토지 조건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카라유키상' 연구의 선구자인 모리 카츠미(森克己)는 天草의 토지 환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섬(天草-박경은) 안은 가는 곳마다 산과 산의 연속이고, 게다가 그것들에는 이렇다 할 높은 봉우리는 없으나 어느 것이나 모두 급경사여서 큰 강도 없고, 따라서 평지가 극히 적기 때문에 면적이 크고 넓은 것에 비하여서는 경지가 부족

25) 清水洋·平川均, 앞의 책, p.31.
26) 『鎮西日報』, 1907.8.2, 1908.4.29.

dCollection

하다.

이에 덧붙여 그는 이러한 지리적 악조건은 여러 사회적·경제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그 중 天草 사람들이 타국으로 돈벌이를 하러 가는 것도 이러한 현상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27] 天草에서는 "남자를 낳으면 집안의 수미(愁眉)를 찌푸리는 불길한 일이 되고, 여자를 낳으면 이것을 길조로 여겨 축사를 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하러 가는 주체는 주로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28]

한편, 長崎縣도 天草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長崎縣은 온난한 날씨와 쓰시마 난류의 영향으로 농업에 상당히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하여 半島[29]에는 "높고 험준하게 솟은 산들과 언덕이 척추와 같이 뻗어" 경지의 비율이 낮고, 육지에서 떨어진 섬들은 한층 더 심하였다고 한다. 1960년에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長崎縣의 총 경지 면적 중 경사가 5도 이하가 21.5%, 5도 이상 15도 미만이 29.1%, 15도 이상은 무려 49.4%를 차지하고 있다. 水田 경지의 비율도 37%로 일본의 전국 평균인 50%에 비하여 크게 낮아 열악한 토지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30]

이상 살펴본 九州 북서부 지역의 토지 조건에 의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농업에 생계를 의존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비교적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돈벌이를 하러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해외 도항이 가능한 근대 이후의 시기가 되면 보다 수입이 좋은 해외로 도항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카라유키상'이 출현한 배경을 일본의 내적 요인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어서 '카라유키상'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7) 森克己, 『人身売買』, 至文堂, 1959, pp.14-15.
28) 『鎮西日報』, 1908.4.29.
29) 長崎縣에는 長崎半島, 西彼杵半島, 島原半島의 세 半島가 있다.
30) 長崎県史編纂委員会, 『長崎県史 近代編』, 吉川弘文館, 1976, pp.119-121.

dCollection

2. 동남아시아의 성비불균형

1910년대 초 廢娼 운동가였던 구세군의 야마무로 군페이(山室軍平)는 당시 동남아시아에 4천 명 가까이 되는 '카라유키상'이 존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중 싱가포르에만 2천 여 명이 있었는데, 이는 중국의 '關東州'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이다.[31] 이것은 '關東州'를 일본의 소위 '세력권'으로 보았을 때, 이 당시 일본의 '비세력권' 중 가장 '카라유키상'이 많았던 곳이 싱가포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싱가포르에는 '카라유키상'이 출현하기 이전인 1863년부터 일찍이 소수이지만 끊이지 않고 중국 廣東省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입되었다.[32] 그러다 1870년대에 들어서면 그 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래의 <표2>다.

<표2> 홍콩을 출발하여 해협식민지에 도착한 중국인 성인 여성 수

년도	1860~69	1870~79	1880~89	1890~99	합계
인원	397	11,602	31,318	54,752	98,069

(출전: 可児弘明, 『近代中国の苦力と「豬花」』, 岩波書店, 1979, p.75)

위의 <표2>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18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싱가포르를 포함한 해협식민지에 유입된 중국인 여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1870년대 싱가포르는 물론 동남아시아 전체에 걸쳐 여러 큰 변화가 일어난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지배의 확대이다. 1870년대 서구 열강이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에 대하여 지배를 확대함에 따라 항만, 운하, 철도, 도로가 부설·확충되는 등 식민도시가 대 발전하게 되었

31) 가장 많은 순으로 '關東州' 8,388명, 싱가포르 2,086명, 牛莊(현 랴오닝성의 일부) 1,924명, 블라디보스토크 1,087명, 바타비아 970명이다. (山室軍平, 앞의 책, pp.356-357.) 이 수치는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카라유키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인구의 수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32) YK Lee, 「Prostitution and venereal disease in early Singapore(1819-1889)」, 『Singapore Medical Journal』 Vol. 21, No. 5, 1980, p.722.

Collection

다.[33] 영국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해협식민지만을 거점으로 하여 무역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872년 불개입정책을 포기하고 주석이 생산되는 말레이 반도 내륙으로 진출을 시작하는 것으로 식민 지배를 확대시켜나갔다. 1870년대 동남아시아에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었다. 이 시기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고 고성능 증기선이 개발되었으며, 해저 전선망이 부설되는 등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급부상하였다.[34] 이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는 도시의 인프라구축이나 항만작업, 광산업 등의 육체노동에 종사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대량의 남성 노동자가 중국과 인도로부터 유입되었다. 그리고 남성 이민 노동자의 급증은 싱가포르를 심각한 성비불균형의 사회로 만들었다. 아래의 <표3>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3> 1871년~1911년 싱가포르의 인구

년도	전체			중국인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1871	74,843	22,768	97,111	47,104	7,468	54,572
1881	105,423	33,785	139,208	72,571	14,195	86,766
1891	141,619	43,498	185,117	100,446	21,462	121,908
1901	171,874	58,030	229,904	131,007	33,674	164,681
1911	222,760	88,543	311,303	166,057	58,173	224,230

(출전: Loke Tuck Whye, 「The control of contagious diseases in colonial Singapore 1867-1959」, Department of histor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900/91, p.3.)

위의 표를 보면 1871년 싱가포르의 총 인구 중 남성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고, 1911년까지 계속해서 남성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중국인의 경우 성비의 불균형이 더욱 현저하다. 1871년 중국인 총 인구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대략 8.6:1.4로 나타나고 있고, 점차 완화된 1911년에도 여

33) 可児弘明, 『近代中国の苦力と「豬花」』, 岩波書店, 1979, p.64.
34) 清水洋·平川均, 앞의 책, pp. 4-5.

dCollection

전히 7.4:2.6으로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싱가포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성비불균형의 사회였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성의 수요 또한 발생하였다. 즉, 앞서 살펴본 1870년대 싱가포르로 도항하는 중국인 여성의 급증은 이 시기 남성 이민 노동자의 증가에 수반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한계 상 중국인 여성에 한하여 살펴보는 것에 그쳤지만, 싱가포르 최초의 '카라유키상'이 이시기에 등장하는 것도 상기의 배경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카라유키상'이 상대하는 남성의 절대 다수가 중국과 인도로부터 온 노동자였음을 고려해보면 더욱 더 그러하다.[35] 이 밖에도 싱가포르의 식민 정부는 성매매를 용인하고 허가하는 公娼制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일본 여성이 싱가포르로 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상 '카라유키상'의 출현 배경을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양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측면에서는 '이에' 제도, 일본의 대외 인식, 그리고 '카라유키상'을 최다 배출했던 九州 북서부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측면에서는 동남아시아를 향한 서구 열강의 지배의 확대와 그에 따른 남성 이민노동자의 증가가 '카라유키상'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를 아는 사전』(『東南アジアを知る事典』)에서는 '카라유키상'이 "일본의 대륙 진출에 따른 娼樓의 번성을 배경으로서 조선반도, '만주'나 연해주, 중국 각지, 동남아시아에 퍼졌"다고 설명하고 있다.[36] 그러나 '카라유키상'이 출현하게 된 데에는 단지 '일본의 대륙 진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과 배경이 근저에 있음을 본장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카라유키상'이 일본에서 해외의 한 娼館에 인도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녀들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5) 清水洋·平川均, 앞의 책, p.27.
36) 石井米雄 外, 『東南アジアを知る事典』, 平凡社, 2008, p.103.

dCollection

III. '카라유키상'의 이동 네트워크

'카라유키상'은 대부분이 한촌 출신의 여성으로 자의에 의해서이든 타의에 의해서이든 단신으로 외국에 도항하기 힘든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데다 글을 모르고 심지어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외국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욱이 189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도항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 또한 이들의 해외 도항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라유키상'이 고향에서부터 먼 해외의 땅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국내외에 걸쳐 형성된 네트워크에 의해서였다. 이하에서는 '카라유키상'의 이동 네트워크를 일본 국내에서 먼저 살펴본 후, 일본 국내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확장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본 국내

일본 여성이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해외로 도항하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추측 해볼 수 있을 뿐인데, 『鎭西日報』의 한 기사에서는 '카라유키상'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 ▲밀항의 기원
> 長崎나 天草의 여자가 해외에 밀항하기 시작한 것은 어떠한 동기에 의한 것인지, 어떠한 자극에 의한 것인지 연구한바 이러한 사실을 얻었다.
> 天草 출생의 시마라는 여자가 長崎로 나가 서양인의 하녀가 되었는데, 그 서양인 주인이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일본 여자는 순종적이라 좋아서 데리고 갔지만 말은 잘 모르고 사정에도 통하지 못해 일본에 있을 때와는 달리 만사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해고해 버렸다. (중략) 그렇다면 그곳에서 버려져 이제 와서 귀국할 방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시마는 어떻게 분별했을까.
> ▲수만금을 가지고 돌아간다.
> (중략) 일단 해외에 나온 이상은 돈이라도 기념품으로 하여 돌아가겠다, 돈을 벌어 보겠다고 결심하여 외국인의 주점에 고용되어 간간이 손님을 받았다. 손님을 받아보니 일본인은 꽤 몸가짐이 단정하고 청결하다. 또 서양 부인과 다르게

Collection

제 마음대로인 구석이 없고 순종적이고, 또 하나 아주 신기하다. (중략) 계속 돈을 벌어서 결국에는 이 삼만 엔의 돈을 벌어서 고향인 天草에 큰 곳간을 지어 올렸다.[37]

위의 기사에서는 일본 여성이 해외로 도항한 기원을 외국인의 하녀로 고용되었던 여성이 그 외국인을 따라 해외로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여성이 해고당하여 귀국할 방법도, 의지할 곳도 없어 성매매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카라유키상'이 창출된 배경을 연구한 타게모토 니나(嶽本新奈)도 개국 후 일본인 여성이 해외에 도항한 사례 중 서양인의 첩으로서 외국인과 함께 도항한 사례가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38] '카라유키상' 네트워크의 기원이 된 것이 이상과 같이 외국인과 함께 도항한 일본 여성일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라유키상'의 전성기인 러일전쟁 전후부터는 대다수의 '카라유키상'은 당시 '부녀 유괴자', '밀항 유괴자', '密航婦 유괴자'라 칭해지던 인신매매업자에 의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동하였다. 이 네트워크의 지역적 분포, 인적 구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카라유키상'의 이동 방법 등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역적 분포

『福岡日日新聞』과 『門司新報』의 '카라유키상' 관련 기사를 분석한 스즈키 유코와 모리사키 카즈에는 인신매매의 중심지로서 門司를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분석한 기사들에 의하면 門司에 여성 매매자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尾道, 神戸, 大阪 등지에서 여성을 구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한 기사에서는 門司를 "九州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로 표현하고 있다.[39] 이와 같이 門司는 일본 국내 '카라유키상'의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는 틀림없는 듯 보인다.

37) 『鎮西日報』, 1908.4.30.
38) 嶽本新奈,「 「からゆき」という歴史事象創出の背景:「性的自立性」の多様性」」, 『言語社会』 第2号, 2008, p.376.
39) 스즈키 유코, 앞의 책, pp.312-314, 森崎和江, 앞의 책, p.29.

Collection

상기와는 달리 長崎에서 발행된 『鎭西日報』에서는 長崎 또한 인신매매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다음의 「부녀 유괴의 두목 잡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 大阪府 西成郡 豊崎村의 평민, 도깨비로 불리는 가토 즉 오카자키 테츠지(24)는 유명한 밀항 부녀 유괴자 두목으로 당지(長崎-박경은)를 근거로 하여 福岡, 熊本, 門司 등지에서 흉악을 저지른 놈인데, 작년 당지에서 수감되어 長崎 감옥서에서 복역하고 작년 12월에 방면되었다. 그러나 곧 門司로 건너가 門司市 仲町 7丁目 숨어 지내며 長崎縣 北高来郡 諫早村 성씨 불명의 산지(29), 出雲町 성씨불명의 치에코(47) 등의 부하를 통해, 일찍이 테츠지가 숙박하고 있던 今町의 여관 노구치 토라키치의 여동생 타마(36)을 부하로 써서 寄合町의 貸座敷[40]인 松鶴楼에서 고용살이를 하고 있는 熊本縣 天草郡 御領村 大字領山 미야자키 세이키치의 여동생 키요(19), 大浦의 모 집에서 마찬가지로 고용살이를 하고 있는 天草郡 御領村 大字 大嶋 가마자키 요스케의 차녀 가야(20)를 꾀어내어 20일 오전 4시 長崎역을 출발하여 도중에 博多에서 2박하고, 23일 테츠지의 은신처에 정착하였다. 잠복중인 門司서의 탐지에 의해 모두 체포되었고, 부녀들은 부모에게 송환 되었다.[41]

위의 기사에 등장하는 오카자키 테츠지란 이름의 유명한 '밀항 부녀 유괴자'는 長崎를 근거지로 하고 福岡, 熊本, 門司 등지를 영역으로 하여 여성을 조달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또한 長崎에서 활동이 힘들어지자 門司로 근거지를 옮겨 계속하여 해외로 도항시킬 여성을 조달하고 있었다. 여기에 기재된 寄合町는 丸山町와 함께 長崎의 마루야마(丸山) 유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 大浦는 山口縣 북서부에 위치한 현재 長門市의 일부이다. 즉, 이 자는 長崎에서 門司로 근거지를 옮긴 후에는 長崎와 山口縣까지 범위를 넓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長崎는 또한 여성을 조달할 때 필요한 자본의 중심이었던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를 다음에 소개할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長崎와 블라디

---

40) 座敷는 방이나 손님을 접대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貸座敷는 남녀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 座敷를 빌려주는 업을 일컫는다. 遊廓, 女娘屋과 동의어이다

41) 『鎭西日報』, 1908.1.28.

dCollection

보스토크 간을 주 영역으로 하였던 이마 소타라는 이름을 가진 인신매매업자의 “참회(懺悔)”담을 실은 것으로, 여성의 ‘유괴’와 관련하여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 (전략) 天草는 부모 쪽에서 자진하여 딸을 외국에 보내달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부하로 쓰는 노파에게 이삼엔 쥐어주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長崎 근처의 여자는 권유할 때 힘이 드는 이상 부모에게 다소 돈을 先貸로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합니다만, 또 여기에는 이 자본을 내는 大問屋가 있습니다. 시내에만도 두세 채는 있습니다. (후략)[42]

상기의 기사에서는 長崎에 ‘大問屋’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問屋’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여 도매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大問屋’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長崎가 여성을 구할 때 필요한 자본을 대주는 중심지의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기의 기사들을 통해 長崎 역시도 門司와 함께 일본 국내의 ‘카라유키상’을 조달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인신매매업자들이 근거로 삼았던 중심지이자, 자본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門司와 長崎 이외에도 神戸를 중심으로 하여 門司, 博多, 長崎, 口之津를 영역으로 하고 있는 ‘부녀유괴자’도 있음을 기타의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43] 이상을 종합해보면, 일본 국내의 네트워크는 長崎, 門司, 神戸를 중심으로 하여 九州, 広島, 그리고 関西지역 일대까지 넓게 뻗어 원활하게 일본의 여성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인적 구성과 ‘카라유키상’ 모집의 방법

‘카라유키상’이 이동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던 이들 ‘유괴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여성을 모집하고 있는지 당시의 『鎮西

42) 『鎮西日報』, 1907.2.9.
43) 『鎮西日報』, 1907.1.26.

Collection

日報』에서는 여러 차례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아래의 기사도 그 중 하나로 長崎의 수상경찰서에서 작성한 '밀항 유괴자 명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전략) 이(해외 밀항-박경은)를 단속하는 당 수상경찰서는 몇 개월 간 이들 密航婦 유괴자 또는 그 혐의자를 內探하는 중에 시내는 말할 것도 없고 시외 각 郡에서부터 멀리 門司 지방과 연락을 통하여 항상 왕래하는 자, 즉 밀항 유괴자 명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조제 중 드디어 최근에 종료하였다. 그 사람 수는 몇 사람에 달한다. 그 중에는 시내에 있는 상당한 자산을 가진 상인 또는 항상 公과 私의 연회 따위에 출입하는 소위 유력자도 있다고 한다. (후략)[44]

이 기사를 보면 인신매매업자 중에는 재력이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한 명의 여성을 조달할 때는 부모에게 건네줄 先貸金이나 이들을 이동시킬 때 드는 교통비, 숙박비 등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인'이나 '유력자'가 앞서 언급한 '大問屋', 즉 여성을 구할 때 필요한 자본을 제공해주는 곳과 관련되어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인'이나 '유력자'인 '밀항 유괴자'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기사를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 몸에는 비단을 묶고 금색 찬연한 외면을 하면서, 신사 같은 모습을 한 남자야말로 반대로 뱃속에는 바늘을 품고 범과 이리의 욕망을 품고 있는 자다. (중략) 縣下 南高來郡 島原町 곤약제조업 혼다 토라하치(文久 2년 1월생), 및 같은 郡 湊町 무역상 타카기 켄(嘉永4년 12월생)의 두 명은 겸업으로 밀항 유괴를 하여 여성의 단물을 빨아 먹고 있다. (후략)[45]

위 기사와 같이 인신매매업자는 제조업이나 무역업 등 소위 '正業'에 종사하면서 '부녀의 밀항'을 겸하는 자들이었다. 이밖에도 "간판에는 침술영업이라고 쓰고 있으나 그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수단"일뿐 여성을 '유괴'하여 밀항시키는 자도 있었다.[46] 이상의 인신매매업자들이 모두 남성이었던 것과는 달

44) 『鎭西日報』, 1907.4.17.
45) 『鎭西日報』, 1903.10.21.
46) 『鎭西日報』, 1900.4.14.

Collection

리 “여자이면서도 이름이 알려진 유괴자”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47] 여성을 매매하는 당사자가 바로 여성이라는 점은 매우 놀라우나, 이밖에도 ‘카라유키상’을 조달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여성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신매매업자의 부하가 되는 것이었다. 인신매매업자는 본인이 직접 자신이 영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로 가서 여성을 조달하기도 하였지만, 부하를 파견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여성을 입수할 수 있었다. 『鎭西日報』의 1907년 1월 26일자 기사에는 ‘바다 일(海事)’에 매우 정통한 자의 실제 체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 부하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하였다.

> (중략) 유괴자의 부하는 반드시 부인이 아니면 안 된다. 여자는 여자 끼리로, 결코 남자의 입에 발린 말에 올라타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여자를 이용해 능숙하게 설득한 후 10엔이나 30엔의 동정금을 부모에게 주고, 玉를 유괴자에게 인도한다. 이 부하의 수수료는 우선 한 명에 15엔 정도 됩니다. (후략)[48]

상기의 기사와 같이 ‘유괴자’의 부하로서는 여성이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통념을 이용하여 감시망을 피하고자 한 아래와 같은 사례도 있다.

> ▲전 長崎市 시청의 給仕
> (전략) 타나카 토미타로(17)는 (중략) 재작년 월급 7엔 50전의 고용인으로 등용되어 縣稅課 근무를 명받고 이제부터 출세하여 市 서기가 된다고 하는 전도유망한 몸이었는데, 작년 12월 돌연 사직하였다. (중략) 同人은 어느 샌가 시내의 密航婦의 도모토라 불리는 자의 신임을 얻어 그의 부하가 되어 크게 활약하였다. 시청을 사직한 작년 12월부터 올해에 걸쳐 熊本의 天草郡, 富津村 및 縣下 嶋原 지방으로 여행하여 블라디보스토크 행 여자를 권유하였다. (중략) 세상에 密航婦 유괴의 수단은 종류가 여럿 있다. 그들의 부하로는 여자가 가장 적당하다고 이 방면의 악한이 말하는데, 나이가 어리고 미숙한 소년을 부하로 써서 엄중한 감시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미워해도 충분치 않은 짓이라 해

47) 『鎭西日報』, 1908.10.15.
48) 『鎭西日報』, 1907.1.26.
‘玉’란 당시 유괴한 부녀를 일컫는 속칭이다.

dCollection

야 할 것이다.[49]

위 기사에서 인신매매의 부하로 어리고 미숙한 소년을 쓴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직접 설득하는 부하들 중 여성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 위 기사에 등장하는 소년이 어떠한 이유로 인신매매업자의 부하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선 기사(『鎭西日報』, 1907.1.26.)에서 인신매매의 부하가 여성 한 명당 받는 수수료가 15엔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월급 7엔 50전'을 받던 시청의 給仕에게 이 금액은 상당히 유혹적이었을 것이다.

인신매매업자나 부하들은 가난한 시골까지 찾아가 직접 소녀나 그들의 부모를 설득하는 경우도 있었는가 하면, 長崎의 마루야마 유곽 같이 시골 소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모여든 곳을 찾아가서 그녀들을 손에 넣기도 하였다.[50] 인신매매업자나 그의 부하들이 주로 사용하는 감언이설은 '해외에서 여공이나 가정부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거나, '국내의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말이었다.[51] 이상의 기사들을 통해 보면 여성을 '유괴'하였다는 것은 강제 수단을 써서 억지로 데려가는 '납치'의 의미보다는 사람을 속여서 꾀어낸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소녀들이 소위 '속아서' '카라유키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경제는 러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막대한 군사비 지출 등에 의해 불황을 겪고 있었다. 이에 "너무나 심한 불경기에 외국에라도 도항하여 이익을 얻고자" '카라유키상'의 길을 택한 자도 있었다.[52] 앞서 제시한 『산다칸 8번 娼館』의 키타가와 사키의 경우 역시 자신이 해외로 가면 오빠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도항을 결심하였다고 하고 있다.[53] 감언이설에 속은 경우이든 스스로 결심을 한 경우이든 '카라유키상'이 된다는 것은 그녀들이 가난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70년대 말 조선으로 도항한 '카라유키상'은 東京의 요시와라(吉原) 유곽이나 長崎의 마루야마 유곽, 下関의 유곽 출신의 藝娼妓가 많았다.[54] 이와는

49) 『鎭西日報』, 1907.2.2.
50) 『鎭西日報』, 1908.1.28.
51) 『The Straits Times』, 1913.9.26., 『鎭西日報』, 1907.1.19.
52) 『鎭西日報』, 1903.8.1.
53) 山崎朋子, 앞의 책, pp.75-76.
54) 다카사키 소지 저, 이규수 역, 『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2006, p.28.

dCollection

달리 동남아시아로 도항한 '카라유키상'은 대부분이 寒村 출신의 소녀로, 아직 사료 상으로 일본의 藝娼妓 출신자가 동남아시아로 도항한 경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원인에 대하여서는 추후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신매매업자를 통해서든, 혹은 그 부하를 통해서든 모집된 여성들은 일본 국내의 육로나 항로를 통해 長崎나 門司, 神戸 등의 주요 송출항에 집결되었다. 이 중에서도 '카라유키상'의 송출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長崎항이었다. 이들 송출항에서 부터 '카라유키상'이 어떻게 해외로 도항하였는지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일본 국내외

(1) 지역적 분포와 인적 구성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러일전쟁 전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가 '카라유키상'의 최성기이자, 이 시기에 상당히 조직화되었던 네트워크가 일본 국내외에 걸쳐 존재하여 '카라유키상'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소위 '오야붕(親分)'이란 자들로, 이들은 일본 국내에서는 '유괴'나 密航業의 우두머리임과 동시에 해외에서는 유곽이나 초기 일본인 사회의 유력자였다.[55]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이들 '오야붕'을 상세히 다룬 기사를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싱가포르에는 부녀 유괴로 막대한 돈을 모은 North Bridge Road의 포목점 요네이 아무개를 시작으로 神戸 출신이자 순사 살인 범인으로 유명한 우데노 키요조, 페낭 靑樓의 重役인 오쿠보 에이고라고 하는 무리와 門司, 長崎, 口之津 간을 영역으로 하고 있는 하마요 타로, 門司와 홍콩 간을 담당하고 있는 門司에 거주하는 사쿠라이 타미키치라고 하는 악한이 빈번히 왕복하여 玉(유괴한 부녀)를 대개 Malay Street의 여관 東洋館에 데려와서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후략)[56]

55) 清水洋·平川均, 앞의 책, p.33.
56) 『鎭西日報』, 1907.1.29.

Collection

이 기사에 의하면 하마요 타로와 같은 '오야붕'은 門司, 長崎, 口之津 간을 영역으로 하면서 싱가포르를 직접 왕래하며 여성을 조달하고 있다. 페낭이나 홍콩 등 일본 유곽이 발달한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있는 '오야붕'들도 여성을 구하기 위하여 싱가포르를 빈번히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North Bridge Road의 포목점 요네이 아무개'는 '카라유키상'을 조달하는 일을 하여 싱가포르의 초기 일본인 사회의 유력자가 된 전형적 사례로 보인다. 이들 소위 '오야붕'에 의해 통솔되어 연간 오륙백 명이나 새로운 처녀가 홍콩과 싱가포르로 유입되었다고 하니, 이들의 왕성한 활동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57] 이상과 같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직접 일본을 왕래하며 해외로 도항시킬 여성을 구하는 '오야붕'들 중에는 한 때 '카라유키상'이었던 여성도 있었다.

> 原籍을 神戸市 仲町 6丁目 29番에 둔 이마이 오마츠(40)라는 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상하이에 도항하여 醜業을 하던 중 재류 독일인 후레시 소시크란 자의 첩이 되어 스마트라 섬에 거주하다 3명의 아이를 낳고 그 후 34년(서력으로는 1901년-박경은)에 헤어져 변함없이 싱가포르 또는 상하이 방면의 모 料亭 여관 등에 고용되어 살면서 왕성하게 일하여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 재작년 松亭 일명 末廣洋行 즉, 시로이시 아무개의 집에 살면서 대대적으로 醜業婦를 모집하여 영업하였다. 작년 10월 일단 神戸에 돌아와 당지에 와서 팔방으로 손을 써 (중략) 3명을 포섭하여 부모들에게는 神戸의 외국 상관에 식모로 고용되어 살면 많은 급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고, 20엔 내지 30엔을 건네주고 승낙을 받았다. (중략) 3명에게 엄중한 감독을 붙이고 머지않아 싱가포르로 데리고 나갈 준비를 하고 만일 누가 행선지를 물으면 상하이에 간다고 대답하라고 하였다. (후략)[58]

상기의 기사는 20년 전 상하이와 싱가포르 방면에 거주한 '카라유키상'이 나이가 들자 본인이 직접 일본으로 와서 해외로 데리고 나갈 여성을 구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일본 국내외를 오가며 활동한 '오야붕'들 중 여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 여성이 한 때는 본인도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매우 흥

57) 南洋及日本人社, 『南洋の五十年-シンガポールを中心に同胞活躍』, 章華社, 1938, p.155.
58) 『鎭西日報』, 1907.1.19.

dCollection

미로운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이 직접 娼館을 경영하는 사례도 싱가포르의 신문 상에서 여러 차례 찾아볼 수 있었다.[59] 이들 중에는 위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해외로 도항하여 성매매를 하다 싱가포르에 자리를 잡고 직접 娼館을 경영하게 된 '카라유키상'도 있을 것이다. 앞서 일본 국내 인신매매업자의 부하로도 여성이 많았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카라유키상'의 모집이나 이동, 娼館의 경영 등 그녀들을 둘러싸고 다양한 여성들이 관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야붕'이나 '카라유키상'이 직접 왕래하는 것 이외에도 이색적인 방법으로 일본의 국내외를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그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 佐世保市 下矢岳町의 츠루타 네노사쿠(33세)는 淸國 즈푸에 첩 카네코 소메카를, 싱가포르에 본처 카키모토 아무개를 두고, 그 외에 홍콩, 상하이 등에 같은 종류의 여럿이 있어 연락을 통해 일본의 부녀를 교묘하게 유괴해 이들을 옮기는 일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그 동안 뻔뻔스럽게 돈을 모은 것을 최근 芝罘 일본 영사관이 알게 되어 올해 12월부터 향후 2년간 淸國 재류를 금지당하고, 다케시마마루 호를 통해 그저께 아침 門司 수상경찰서에 송환되었다.[60]

위의 기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카라유키상'의 주요 송출지이자 출신지이기도 한 長崎縣의 佐世保에 거점을 두고 일본 유곽이 발달한 곳곳에 아내나 첩을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던 '오야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신매매업자의 아내나 첩으로서 '카라유키상'의 이동에 가담하고 있는 이들 여성들 역시 각각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娼館을 경영하거나 포주에게 알선해주는 중개업자였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상 같이 인신매매업자가 직접 왕래하거나, 또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두어 구축한 네트워크 속에서 '카라유키상'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다음에서 살펴보자.

---

59) 『The Singapore Free Press and Mercantile Advertiser』, 1894.2.26., 『The Daily Advertiser』, 1894.2.26., 『The Straits Times』, 1897.11.25., 『The Eastern Daily Mail and Straits Morning Advertiser 』, 1906.3.14.

60) 『鎭西日報』, 1907.8.31.

Collection

(2) 해외 도항의 방법과 경로

오랜 기간 쇄국체제를 고수해온 江戸 막부가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1854년 미일화친조약, 1858년 미일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은 개국을 하였다. 개국을 통하여 일본인의 해외도항이 가능해진 후 막부가 내린 최초 공적인 조치는 1865년 발표된 '海外渡航差許報告'로, 일본인은 해외로 도항할 경우 '印章'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여권이 필요하게 되었다.[61] 明治 시기에 들어서는 1876년 '外國船乘込規則'이 제정됨으로써 외국선에 탑승하여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1인당 1매의 '乘船証書'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만 배에 올라탈 수 있었다.[62] 그러나 동남아시아 도항 초기에는 수속이 매우 간단하여 허가증도 없이 배에 올라탈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官制의 도항 수속을 거친 자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63] 1880년대에 들어서는 移民會社에 의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明治 정부는 1893년의 外務省 訓令을 발표, "醜業을 직업으로 하는(醜業ヲ営マシメ)"자의 도항을 금지시키고 있고,[64] 1894년 '移民保護規則', 1896년 '移民保護法'를 선포함으로써 외국으로 도항하고자 하는 자의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민보호법에서는 이민의 종류를 육체노동과 가사로 제한하고, 이외의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에게는 여권의 발급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카라유키상'은 밀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65] 이것이 그녀들을 당시 일본에서 '密航婦' 혹은 '密航婦女'라 칭한 이유이기도 하다. '카라유키상'의 밀항 방법과 실태에 대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카라유키상'이 돛이나 선구를 싸는 멍석 속에 숨어서 도항하는 등 상당히 열악한 환경 하에 있었음이 강조되고 있다.[66]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신문의 한 기사에서도 '카라

61) 矢野暢,『「南進」の系譜』, 中央公論者, 1975, p.27.
62) 岡島真七, 『諸罰則概表』, 大阪裁判所 編, 1878, p.9.
63) 宮下琢磨, 『邦人活躍の南洋』, 岡田日藤堂, 1929, p.43.
64) 藤永壮, 「植民地公娼制度と日本軍「慰安婦」制度, 『植民地と戦争責任』, 吉川弘文館, 2005, p.23
65) 「移民保護法施行細則」 1896年
第一條 移民保護法第一條ニ掲クル勞働ノ種類ヲ定ムルコト左 如シ
一. 耕作、栽培、牧畜、漁業、鑛業、製造、土木、運搬、建築等ニ從事シ勞力ヲ供スル者
二. 炊事、洗濯、裁縫、給仕、看病等ノ爲メ家事ニ使役セラル者
(『移民保護法及施行細則』, 外務省通商局第二課, 1896.)

dCollection

유키상'이 5~6일 동안이나 "작은 선창에서 빛이나 음식도 없이" 갇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67] 그러나 『鎭西日報』의 한 기사에서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밀항 수법의 목격담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 (전략) 여자를 遊女屋에서 데리고 온 附馬[68]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선원이 데리고 들어간다. 또 선원의 친척이나 아내가 빨래를 들고 온 것처럼 보자기를 안고 와 능숙하게 본선에 올라 태워 공공연하게 선원의 배에 넣어두고, 조금도 감추지 않는다. 경관은 고정관념에 갇혀 예의 그 선창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아무렇지 않게 선원실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 여자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혹시 발각 되도 선장이나 사무장에게 부탁 받은 아무개 친척이나 누군가의 아내라고 속여 버린다. (중략) 이런 종류의 密航者는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하루에 주먹밥 한 개 밖에 받지 못하고 배고픔과 갈증에 허덕이는 일은 사실 상 없다. 음식은 충분하다. (후략)[69]

위의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목격담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보다 상당히 '수월'하게 밀항한 '카라유키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녀나 선원의 가족인 척을 하거나, 경관들이 선창과 같은 곳을 확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역으로 이용한 방법은 실로 교묘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교적 '편하게' 도항한 '카라유키상'의 사례는 상기의 기사 한 건 외에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이 밖에 '카라유키상'의 밀항의 실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기사 대다수에서는 그녀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도항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전략) 작은 배에서 汽船으로 갈 때에는 여자를 작은 배의 밑바닥에 나란히 줄지어 놓고, 인솔하여 가는 密航者도 함께 그 속에 들어가 멍석을 덮고 그 위에 船貨 같은 것을 실어서 짐을 운반하는 것과 같이 보이게 한다. 여기에 기묘한 관례가 이들 밀항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 密航婦와 감독하는 남자와

66) 스즈키 유코, 앞의 책, p.311.
67) 『The Straits Times』, 1913.9.26.
68) 付馬란 치르지 못하거나 모자라는 유흥비를 받으러 손님의 집까지 따라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69) 『鎭西日報』, 1907.1.27.

Collection

> 뒤섞여 잘 때 남자는 이들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되는 여자에게는 슬쩍 손을 댄다. 그 여자는 목적항에 도착할 동안 남자의 의지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손을 댄다는 것은 감독자의 절대권이 發動하는 것으로 (중략) 그리하여 그 남자는 그녀가 목적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더럽히는 것이다. 이것은 密航監督의 부수입이다.[70]

또한 밀항자와 선원 사이에서는 '카라유키상'을 '돼지'라는 암어로 불렀다고 한다. "캄캄한 상자 속에 분뇨에 뒤덮여 악취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돼지'라는 암어로 불렸던 것 같다.[71] 일부의 '카라유키상'은 汽船에 승선하였을 때는 어느 정도 자유롭고 편하게 있었을지 모르나, 일부는 도항 중에 '監督者'에게 性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캄캄한 상자 속에 갇혀 지내야 하는 등 순탄한 항해를 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밀항 중에 강간·교살 당하는 '카라유키상'도 있었다.[72]

이상의 밀항의 방법 이외에도 인신매매자들은 '카라유키상'을 석탄을 실은 배에 인부로 속여 태우거나,[73] 다른 이의 여권을 이용하여 도항시키거나,[74] 중국인 여성으로 변장시키거나[75], 본인의 아내라 사칭하는 등[76]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카라유키상'의 도항을 시도하였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해외로 도항할 경우 '카라유키상' 한 명이 홍콩으로 도항하는 것은 2백 50달러, 싱가포르로 가는 것은 3백 달러에서 3백 50달러가 시세였다. 이 중 인신매매업자는 여비나 잡비 일절을 차감하고도 한 명당 2백 달러 가까이 이익을 봤다고 한다.[77] 이 도항비는 이후 '카라유키상' 본인이 떠안게 되는 빚의 일부가 되었다.

일본에서 동남아시아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카라유키상'을 실은 배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여러 기항지를 들러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것이라는

70) 『鎭西日報』, 1908.5.2.
71) 『鎭西日報』, 1908.5.6.
72) 『鎭西日報』, 1907.1.20.
73) 『鎭西日報』, 1907.1.26.
74) 『鎭西日報』, 1900.5.24, 1903.8.1.
75) 『鎭西日報』, 1908.3.24.
76) 『鎭西日報』, 1903.10.31.
77) 南洋及日本人社, 앞의 책, p.155.

dCollection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일본 배의 항로가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홍콩까지 연장된 것은 1879년 日本郵船의 전신인 郵船三菱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이 항로는 5년 뒤 영국, 프랑스, 미국과의 경쟁에 밀려서 폐지되었다. 이듬해인 1885년 日本郵船이 설립되었고, 1890년 홍콩 항로를 개설하게 되었다.[78] 그러나 당시 일본 내외의 항로는 歐美의 해운회사가 대거 진출하여 이들에 의해 장악되어있었고, 이 때문인지 『鎭西日報』에서 기사화된 '카라유키상'의 도항은 대부분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선박들은 일본을 출발하여 최종 목적지인 유럽이나 미국의 항구까지의 여정 중 싱가포르나 페낭 등지에 寄港하였기 때문에, '카라유키상'은 歐美의 선박을 통해 동남아시아로 도항할 수 있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 역시도 독일의 汽船을 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던 중 싱가포르에 寄港한 적이 있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독일의 프로이센호는 1900년 9월 8일 横浜를 출항하여 神戸, 長崎, 상하이, 푸저우, 홍콩을 들른 후 9월 25일 아침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고 한다.[79] 横浜에서 싱가포르까지 17일이 소요된 것인데, '카라유키상'이 도항을 위해 탔던 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해보면 도항의 경로와 소요 시간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도항 방법과 경로를 통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카라유키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娼館에 인도되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카라유키상'의 '매매'

목적지에 도착한 후부터 '카라유키상'은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다루어졌다. 1907년 1월 27일, 28일에 걸쳐『鎭西日報』에서는 바다 일에 능통한 소위 "海事通"의 실제 체험담을 바탕으로 '카라유키상'이 어떻게 '매매'되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기사를 부분적으로 발췌하였다.

(전략)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선원이 하역 등에 분주한 틈을 타 몰래 공모한 선

78) 矢野暢(1975), 앞의 책, p.32.
79) 西原大輔, 「日本人のシンガポール体験(1) 夏目漱石のシンガポール観光」, 『シンガポール』, 2000年 1号, 2000, p.18.

Collection

원의 방에 데리고 들어가 가장 먼저 양동이에 따뜻한 물과 찬물을 붓고 몸을 모두 닦아주고 머리를 빗질하여 준비를 합니다. 거친 무늬의 유카타에 시골뜨기의 발은 어이가 없기 때문에 흰 버선을 신기고 제대로 몸차림이 준비되면 사는 측에 이를 통지하는 것입니다.[80]

(전략) 통지를 받은 東洋館이라던지 靑樓로부터 두 세 명의 여자가 마차를 타고 부두에 나온다. (배는 부두에 옆으로 정박 해 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놀러오세요' 등 호객하러 온 척하며 배에 올라타서 농담을 하거나 장난하며 돌아갈 때에 서슴지 않고 유괴해온 여자를 데리고 나가 마차에 태운다. 간혹 이곳의 경관이 의심하여 불러 세워서 심문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얼마 안 되는 뇌물로 벗어날 수 있다. (후략)[81]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항에 도착한 '카라유키상'은 치장을 마친 후에 '東洋館'이나 娼館에서 나온 여자들에 의하여 인솔되었다. 여기서 '東洋館'이라 불리는 곳은 싱가포르 일본인거리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Malay Street에 위치한 일본 여관이었다. 이곳은 '카라유키상'을 사고파는 매개망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와 같은 여관을 가리켜 당시에는 '女衒宿'이라 칭하였다. '카라유키상'이 '東洋館'과 같은 여관에 도착하면 각지에서 모여든 娼館의 주인들과 인신매매업자 사이에 거래가 시작되었다.[82] 때에 따라서는 '카라유키상'이 배에서 숨어 기다리는 동안 인신매매업자가 먼저 상륙하여 娼館 측과 거래를 하고, 그 거래가 끝나면 바로 娼館의 주인이 '카라유키상'을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83]

'카라유키상'이 거래되는 가격은 한 명당 백 50엔에서 8백 엔까지 다양했는데, "최상급의 특품"이 7백 엔에서 8백 엔이었고, 대개는 3백 엔으로 백 50엔까지 떨어지는 일은 드물었다고 한다.[84] 이 가격은 배 운임, 공모한 선원의 수수료, 차비, 숙박료, 옷값 등이 모두 포함 된 것으로 '카라유키상' 본인의 빚이 되었다.[85] 앞에서 인신매매자의 부하가 시골의 소녀를 사는 대가로 부모에게

80) 『鎭西日報』, 1907.1.27.
81) 『鎭西日報』, 1907.1.29.
82) 宮下琢磨, 앞의 책, p.44, 『鎭西日報』, 1907.1.29.
女衒이란 여성을 娼館에 알선해주는 중개업자를 일컫는 말이다.
83) 『鎭西日報』, 1908.5.6.
84) 『鎭西日報』, 1908.5.6.

Collection

준 돈이 고작 20엔에서 30엔이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카라유키상'은 고향을 떠나 외국의 항에 도착하는 순간 처음 몸값의 열배 이상이나 되는 빚을 갑자기 떠 앉게 되는 것이었다.

娼館에 팔린 후 '카라유키상'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기사 2건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팔린 후

(전략) 우선 포주의 마누라가 다섯 명의 여자를 교대로 방 한 칸으로 데리고 와 여자가 앞으로 移植 기관으로 할 局部를 열어 병의 유무를 검사한다. (중략) 기관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개업한다. (후략)[86]

▲전투준비

局部 신체검사를 마치고 주 무기가 굳세고 튼튼하며 예리한지를 확인 한 위에, 수백 수천의 敵手를 향할 전투 준비를 해야 된다. 寢牀, 寢衣, 수건, 옷장, 거울, 의복 기타 여러 종류의 소도구, 이것이 우선 전투 준비의 부속 무기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물건이 준비되고 자신의 방을 할당 받는다. 방 한 칸에 늘어놓고 준비를 마치면 여기서 開戰의 나팔이 울린다.[87]

상기의 기사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娼館으로 인도된 '카라유키상'은 가장 처음 성병에 감염되었는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899년 이후로는 싱가포르에서 娼館의 포주가 성병에 감염된 여성을 고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였기 때문일 것이다. 성병 검사를 받은 후 여러 소도구를 준비하면 비로소 '카라유키상'은 '개업'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라고 위 기사는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여성의 '局部'를 '移植 기관'이나 '무기'로, 성매매를 시작하는 것을 '開戰'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연이은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과 관련한 용어의 사용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보다는 당시 '카라유키상'을 '娘子軍'이라 칭했던 상황과 결부시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라유키상'이 '娘

85) 宮下琢磨, 앞의 책, p.44.
86) 『鎭西日報』, 1908.5.6.
87) 『鎭西日報』, 1908.5.7.

dCollection

子軍'이라 불리게 된 것은 '카라유키상'이 해외 각지로 나가게 되면서 그녀들과 유곽을 상대로 하는 일본의 잡화상들이 그녀들을 따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카라유키상'은 현지에서 벌어들인 돈을 일본에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일본에서는 그녀들을 '娘子軍'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기사에서 '무기'나 '開戰의 나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추정된다.

이상 九州 북서부 등의 출신지에서부터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娼館까지 '카라유키상'이 이동하는 과정과 구조를 알아보았다. 인신매매업자라 불리는 자들은 '카라유키상'의 주요 출신지에서부터 송출항까지, 그리고 일본을 넘어 해외 일본 유곽이 발달한 여러 지역까지 상당히 광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카라유키상'의 모집과 이동, 그리고 '매매'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 인신매매업자 중에는 해외 도항을 설득하는 인신매매업자의 부하로서, 혹은 직접 일본과 해외를 왕래하며 여성을 구하는 포주로서 왕성하게 활동한 여성들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 중에는 한때 '카라유키상'이었던 자도 있었는데, 이것은 '카라유키상'을 단지 '슬픈 여성사'로만은 볼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장에서 확인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娼館에 인도된 '카라유키상'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아래에서는 동남아시아 내 '카라유키상'의 최대 수요지인 싱가포르를 필드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ollection

IV. 싱가포르의 '카라유키상'

일본을 떠난 '카라유키상'은 조선, 블라디보스토크, 청국 각지, 대만, 홍콩 등 비교적 일본에서 가까운 동아시아나 싱가포르, 바타비아(자카르타), 마닐라 등의 동남아시아를 주요 목적지로 하고 있었다. 이 중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關東州' 다음으로 가장 많은 '카라유키상'을 흡수한 곳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 각지를 비롯하여 호주 및 아프리카 대륙까지 '카라유키상'을 재 분배 혹은 재 배출한 결절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카라유키상'의 네트워크에서 싱가포르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카라유키상'의 실태를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지역적 특색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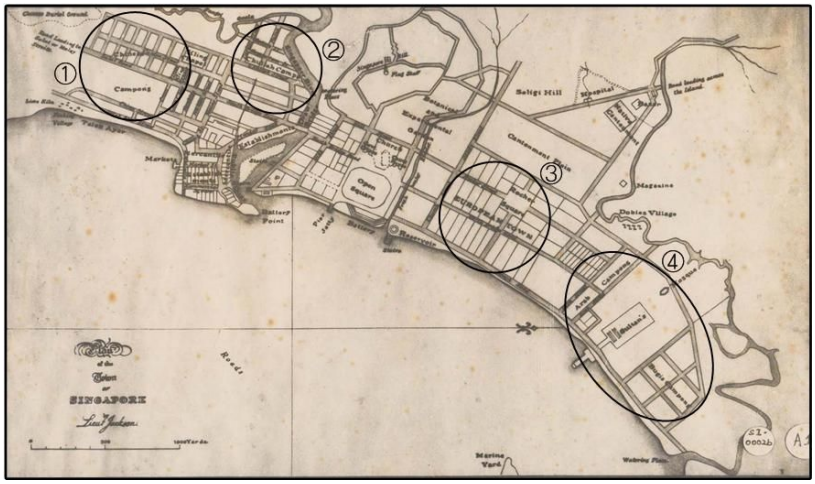
1. 일본 유곽의 형성

1819년 래플즈(Thomas Stamford Raffles)는 싱가포르의 '건설'을 위한 도시 계획에 있어 우선 거주하는 사람들을 여러 '커뮤니티'로 분류했다.[88] 이것은 싱가포르를 교역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무역 상인들에게 싱가포르에서 교역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총 여섯 개의 '커뮤니티', 즉 유럽인,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아랍인, 부기인[89]에게 각각 거주 지구를 배당하였다.[90] '커뮤니티' 별 거주 지구는 아래 래플즈의 지시를 받은 잭슨(Lieutenant Jackson) 중위가 작성한 싱가포르 도심 계획에 상세히 명시되어있다.

88) 시라이시 다카시 저, 류교열·이수열·구지영 역, 『바다의 제국』, 선인, 2011, p.87.
89) Buginese 혹은 Bugis. 현 인도네시아 셀레베스 섬 남부 반도를 중심으로 분포 함.
90) ロバート·ホーム編, 『植えつけられた都市』, 布野修司·安藤正雄·アジア都市建築研究会 譯,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1, p.191.

dCollection

<그림1> 1828년 싱가포르 도심 계획



(출전: 싱가포르 국립 아카이브 홈페이지. 검색일:2012.11.22.)

위의 그림과 같이 싱가포르 강의 서쪽에는 ①중국인과 ②인도인 거주지역이, 싱가포르 강의 동쪽으로는 ③유럽인과 ④무슬림 '커뮤니티'(아랍인, 부기인)가 거주하게 되었다.

한편, 싱가포르의 발전과 팽창을 위하여 성매매를 허용한 영국 식민 정부는 성매매의 구역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娼館들은 상대하는 남성을 크게 중국인과 비중국인으로 나누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에 이르면 중국인 거주구역인 싱가포르의 북서부에는 '반다(Banda)'라 불리는 중국 유곽이, 유럽인 거주구역인 동남부에는 유럽 유곽이 형성되어있었다.[91]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카라유키상'이 증가하고 유럽 성매매 여성이 廢娼하면서 이들 유곽 지역에 변화가 생겼다. 유럽 유곽이 형성되었던 곳이 '카라유키상'으로 대체된 것이다.[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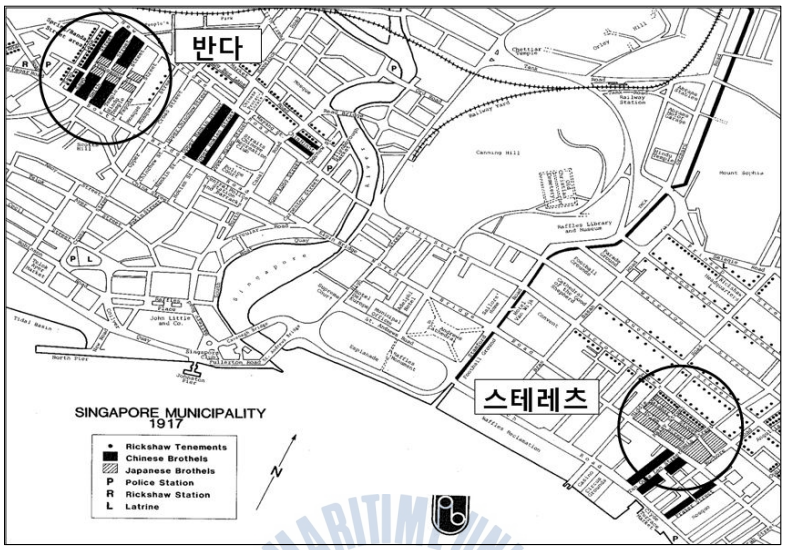
싱가포르에 일본인 성매매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77년으로, 이때 싱가포르 동남부의 Malay Street에 두 채의 일본 娼館이 생겨났다.[93] 1885년 16명에 불과하던 '카라유키상'은 불과 4년 뒤인 1889년에 이르면 134명으로 급증하게 된다.[94] 그리고 그 수는 점차 늘어나 20세기 초에는 6백 여 명에 이르고, Malay Street 일대에 '스테레츠(ステレツ)'라 불리는 일본 유곽을 형성하기에

91) James Warren, 앞의 책, p.39.
92) James Warren, 앞의 책, pp.38-40.
93) 吉岡利起, 『マレーの實相』, 朝日新聞社, 1942, p.117.
94) 清水洋·平川均, 앞의 책, p.29.

dCollection

이른다. 그 위치 및 크기는 아래의 <그림1>과 같다.

<그림2> 1917년 싱가포르의 유곽



(출전: James Warren, 앞의 책, 속표지에서 가공)

본 지도에서 확인되는 '스테레츠'의 위치를 상기의 1828년 싱가포르 지도와 비교하여 보면 원래 유럽인 '커뮤니티'의 거주지로 할당되었던 곳의 가장 동쪽, 즉 무슬림 '커뮤니티'의 거주 구역과 만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1877년 최초의 일본 娼館이 왜 이곳에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싱가포르의 유곽이 상대하는 남성의 '커뮤니티'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아 이들 일본 娼館들이 초기에는 유럽인을 대상으로 할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스테레츠'가 가장 번성한 1905년, 그 곳에는 총 91채의 일본인 娼館에 총 505명의 '카라유키상'이 등록되어 있었다. '스테레츠' 외에도 중국 유곽 지역인 '반다'에도 다수의 '카라유키상'이 존재했다. '카라유키상'은 주로 중국인 이민노동자를 상대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일본 娼館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다' 및 '스테레츠'를 구성하고 있는 거리별 '카라유키상'의 수는 다음의 <표4>와 같다.

dCollection

<표4> 1905년 일본 娼館(공창)과 '카라유키상'의 수

지역		娼館(채)	인원(명)
스테레츠 (ステレツ)	Hylam St.	26	153
	Malabar St.	27	143
	Malay St.	32	179
	Bugis St.	6	30
반다 (Banda)	Sago St.	2	23
	Banda St.	11	67
	Spring St.	5	38
	합계	109	633

(출전: James Warren, 앞의 책, p.49를 가공함)

이 시기 '카라유키상'이 싱가포르에 증가함에 따라 '카라유키상' 및 娼館들을 상대로 하는 일본 서비스업이 진출하여 '스테레츠' 및 그 주위로 일본인 거리(日本人街, Little Japan)가 형성되었다. 주로 진출한 것은 포목전, 사진관, 잡화점, 이발관, 의사 등이었고, 1912년에는 소학교도 생길 정도로 점차 확대되었다.[95] 싱가포르의 일본인 인구와 '카라유키상' 인구의 추이 등을 종합한 다음의 <표5>를 통해 당시 일본인 거리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표5> 싱가포르의 일본인, '카라유키상', 일본 娼館의 추이

년도	총인구	남성	여성	'카라유키상'	娼館	출전
1871		1	0	-	-	☆ p.86
1877					2	◎p.117.
1881		8	14	-	-	☆ p.86
1885		-	-	16		○ p.29
1887		-	-	59	-	○ p.29
1889		-	-	134	-	○ p.29
1890		-	-	148	-	○ p.29
1891	287	58	229	-	-	☆ p.86
1898	614	158	456	-	-	△ p.326
1901	766	188	578	-	-	☆ p.86
1902		-	-	611	83	☆ p.47
1903	948	179	769	585	99	○ p.25

95) Japanese Association Of Singapore, 『Prewar Japanese Community In Singapore: Picture & Record』, Heritage Committee of the Japanese Association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a new club house, 1998, pp.30-31, pp64-65.

dCollection

1905		-	-	633	109	☆ p.47
1907		-	-	516	93	○ p.25
1910		-	-	303	80	○ p.25
1911	1,409	513	896	-	-	○ p.26
1916		-	-	300	-	◇
1917		-	-	270	-	◇
1919		-	-	220	-	◇

(출전: '☆'은 James Warren, 앞의 책, '△'은 高野義夫,『植民地年鑑25 大南洋年鑑 1 1942年版』, 日本図書センター, 2001, '○'은 清水洋·平川均, 앞의 책, '◎'은 吉岡利起, 앞의 책, '◇'은 『The Singapore Free Press and Mercantile Advertiser』, 1920.1.13.를 참조하였음)

'카라유키상'의 유입 과정과 일본 유곽의 형성, 일본인 거리의 형성 과정을 보면 20세기 초에 그 수가 급증하고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싱가포르의 '카라유키상'이 가장 많았던 것은 청일·러일 양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일본의 해외발전이 촉진되었고, 이를 통해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인이 멸시 당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96] 그러나 일본 유곽이 번성했던 또 하나의 영국의 식민지인 홍콩의 사정도 싱가포르에서 '카라유키상'이 증가하는 데에 일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홍콩은 싱가포르와 함께 "醜業婦의 매매시장"과 같은 곳으로, 많은 일본 여성들이 도항하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다.[97] 그러나 김일면(金一勉)이 밝히고 있듯이 일찍이 홍콩에 유명한 일본인 娼館 거리가 있었지만 홍콩에 일본 무역회사가 진출하게 되자 '國辱'으로 소란이 일어나 '카라유키상'은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로 남하하여 그곳을 본거지로 하였다고 한다.[98] 이 같은 견해는 '카라유키상'이 홍콩을 떠나게 된 것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라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그러나 영국 식민정부 측에서도 유곽의 폐업에 대한 대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1900년 5월 당시 홍콩의 총독 대행인 개스코인(William Julius Gascoigne)이 영국의 식민지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홍콩의 사정을 보고하고 있다.

96) 森克己, 앞의 책, p.150.
97) 『鎭西日報』, 1907.1.26.
98) 金一勉, 앞의 책, p.229.

dCollection

2.작년 11월 초, 경찰 警正은 (중략) 도시의 중심 지역, 즉 신뢰할만한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에 세운 사실상 거의 모든 娼館을 폐업시키기 위한 단계를 밟도록 재가 받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여러 해 동안 상당한 골칫거리의 원천이었던 곳입니다.

3.현재 도시 중심부를 치우는 작업은 완료되었고, 183채의 娼館이 이전되었습니다. 자그마치 295채의 娼館은 이전하는 대신 폐업 하였고, 대다수의 娼婦가 식민지를 떠났습니다.[99]

위의 사료를 보면, 1899년 '카라유키상'의 또 하나의 최대 수요지였던 홍콩에서는 영국 식민 정부가 도시 중심 지역에 위치한 사실상 모든 娼館의 폐업을 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총 189채의 娼館이 이전되고, 259채의 娼館이 폐업하였으며 대다수의 성매매 여성이 홍콩을 떠나게 되었다고도 전하고 있다. 위의 서신에서 '娼婦'의 민족별 구성을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 중 '카라유키상'이 어느 정도 차지했는지, 홍콩을 떠난 '娼婦'가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없으나, 홍콩을 떠난 성매매 여성과 싱가포르의 '카라유키상'의 증가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고찰을 통하여 보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의 식민 정부가 성매매를 어떻게 관리 하였고, 그 하에서 '카라유키상'과 일본 유곽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실태는 어떠했는지를 성병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公娼制와 '카라유키상'의 관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식민 정부는 싱가포르에 성매매를 허용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성매매를 관리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처음 도입된 제도는 1870년의 '전염병조례(Contagious Diseases Ordinance)'였다. 이 제도는 식민 모국인 영국의 '전염병법(Contagious

99) Great Britain Colonial Office, 『Straits Settlements, Hong Kong, Gibraltar further correspondence relating to measures adopted for checking the spread of venereal disease』,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by Darling&Son, 1906, p.26.

Collection

Diseases Act)'을 홍콩의 지역 환경에 적용시킨 홍콩의 '전염병조례(1867년)'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100] '전염병조례'의 도입으로 싱가포르의 모든 娼館과 성매매 여성은 정부에 등록되고, 정기적으로 납세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여기서 '전염병'이란 조항 41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질을 포함하는 성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염병조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공창제의 가장 큰 목적은 성병의 예방에 있었고, 모든 성매매 여성은 이 조례 하에서 성병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101] 1886년이 되면 영국에서 페미니스트와 도덕주의자들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 '전염병법'이 폐지되고, 그 여파로 1888년 싱가포르에서도 '전염병조례'가 폐지되기에 이른

100) YK Lee, 앞의 논문, pp.724-725.

101) 성병의 검사와 관련된 조항의 일부를 발췌 번역함. (원문은 부록1을 참조.)

6. 등록된 공창의 포주는 娼館의 여성이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여길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외과의에 알린다. 포주는 감염된 娼婦가 방문의사로부터 의료 검진을 받기 전까지 성매매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포주가 등록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잊거나, 상기의 의료 검진을 받지 않고 계속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다.
7. 어떤 사람이라도 등록된 娼館에서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등록 담당자가 인정할 경우, 포주는 5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그러한 사람을 감염시킨 창부는 50달러 이하의 벌금형이나 중노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3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둘 다를 선고받는다. 그리고 등록된 娼館의 창부에게 전염병을 감염시킨 사람은 50달러 이하의 벌금형이나 중노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3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둘 다를 선고받는다.
13. 모든 창부는 언제나 방문 외과의나 지정된 병원의 건강 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고, 방문 외과의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총독이 규정한 모든 규칙의 대상이 된다.
14. 모든 여성은 본인이 있을 때 서명되고 등록 담당자에게 인증된 제출서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1년의 기간 동안 이 조례 하의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받는다. 모든 여성은 의료 검진의 장소와 때를 지시하는 등의 총독이 정한 규칙의 대상이 된다.
15. 본 조례 하에서 어떠한 의료 검진이라도 받고 난 후, 여성이 방문 외과의에 의해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판정받으면, 외과의는 바로 Schedule(A)라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여성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그 여성은 방문 외과의가 떠나도 좋다는 Schedule(B) 양식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 구금된다.
16. 최소한 경감 대리 이상의 직급의 경찰은 Schedule(A) 양식을 받은 여성을 영장 없이 수감할 수 있고,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41. 본 조례에서 "전염병"이라는 표현은 "임질을 포함한 성병"을 의미한다. "娼館"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이 있거나 사용하는 집이나 장소를 의미한다. "등록된 공창의 포주"는 등록된 주인, 주인이 부재중일 때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등록된 娼館의 여성" 혹은 "娼館의 여성"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그러한 娼館에서 거주하거나 언제든지 그곳에서 발견되는 여성을 의미한다.

(Great Britain Colonial Office, 『Ordinances relating to Contagious diseases ordinances』, Henry Hansard and Son, 1886, pp.85-91.)

dCollection

다.[102]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公娼制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곧바로 '여성·소녀보호조례(Women and Girls' Protection Ordinance)'가 제정되어 계속해서 성매매에 대한 관리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전염병조례'가 성병의 예방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면, '여성·소녀보호조례'는 여성 인신매매의 단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103] 이 조례 하에서 종래의 娼館과 성매매 여성의 등록은 계속하여 의무화 되었지만, 그동안 엄격히 시행된 성병 검사와 허가세의 징수는 폐지되었다.[104] 그러나 성병 검사의 의무가 폐지된 이후에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병 검사는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1890년 싱가포르 식민 정부에 제출된 의료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에 대한 싱가포르 총독의 발언을 다음의 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전략) 세실 스미스 총독은 사이몬 박사가 작성한 1889년 5월 1일 자 의료보고서가 첨부된 공문을 덧붙였다. 후자(의료보고서-박경은)는 이곳의 娼婦가 병에 걸렸을 때 자발적으로 정부의 검사에 응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에 주위를 환기

---

102) 후지메 유키, 앞의 책, p.58.

103) 1896년 '여성·소녀보호조례' 중 여성의 인신매매와 관련된 조항의 일부를 발췌 번역함. (원문은 부록2를 참조.)

Part I. 여성과 소녀에 대한 위법 행위

4. (1) 다음과 같은 사람,

(i) 식민지 안에서 또는 밖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이용될 여성 및 소녀를 팔거나 사거나 소유하는 자

(ii) 식민지 안에서 또는 밖에서 16세 아래의 여성을 알선하거나 알선하려고 시도하는 자. 또는 16세 이상의 여성에게 매춘이 아닌 또는 부도덕적 성격의 결혼 이외의 성적 접촉을 목적으로 알선하거나 알선하려고 시도하는 자. 성매매를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이용될 여성에게 사기를 치거나 부정적인 수단으로 이 식민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자.

(iii) 16세 아래의 여성을 받거나 숨겨주는 자. 또는 16세 이상의 여성을 매춘이 아닌 또는 부도덕적 성격의 결혼 이외의 성적 접촉을 목적으로 받거나 숨겨주는 자. 성매매를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이용될 여성을 사거나 팔거나 받거나 숨겨주거나 하는 자.

(iv) 여성의 의지에 反하여 여성을 娼館에 억류하는 자. 또는 본인의 의지에 反하여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인 목적을 위해 성매매를 행하는 장소에 여성을 억류하는 자.

(v) 불법적으로 그리고 색정적으로 15세 아래의 소녀를 아는 자.

(vi) 본 조항을 위법 하는 자는 대법원이나 두 치안 판사 법정에서 1년 이하의 구금이나 5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를 선고받는다.

(Ng, Siew Yoong, 「Chinese Protectorate 1877-1900」, Dept. of History, University of Malaya, 1955, 부록 J.)

104) 清水洋·平川均, 앞의 책, p.29.

Collection

시켰다. 유럽 여성은 개인 전문의를 선호하고, 이제 강제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여성은 그들의 포주로부터 그것(정부의 검사-박경은)을 받지 않도록 설득 당하였다. 일본인 포주들은 정부의 검사가 진찰과 약 값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경시한다. 그들은 상당한 월급을 주고 개인 전문의를 고용하여 娼婦를 검사하고, 이들은 질병이 없는 자들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한다.(중략)
세실 총독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중략) 머글리스톤 박사가 개인 전문의로서 작성한 증명서와 식민지외과의로서 작성한 증명서와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娼婦들은 대부분 아마도 그를 성병 병원을 총괄하는 정부의 의사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는 것이다. 이들은 약 140명 정도이고, 각각 한 달에 5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중략) 언급된 여성은 모두 일본인으로, 최근의 지시가 공표된 후부터 식민지로 유입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과는 달리, 그들은 언제나 정기 검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은 성병으로 악명 높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악성인 성병을 가지고 오지 않기를 바란다.[105]

조례상으로는 성병 검사의 의무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카라유키상'은 '정기검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아 큰 저항 없이 성병 검사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들이 정부의 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 전문의를 고용하여 검사를 받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 또한 스미스(Cecil Smith) 총독은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위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싱가포르의 '카라유키상'과 일본 포주는 성병 검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싱가포르로 유입된 역사가 긴 중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입이 늦은 일본인들이 싱가포르 정부와 사회의 신뢰를 받고, 원활하게 장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성병 검사의 의무가 법적으로 폐지된 지 약 10년 후인 1899년, '여성·소녀보호조례'가 개정되면서 조항 6 아래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다.

6(A) (1) 만약 포주가 성병을 앓고 있는 여성을 성매매를 목적으로 娼館에 두는 것을 허락한다면, 포주는 대법원이나 두 치안 판사 법정에서 1년 이하의 구금이나 5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를 선고받는다. 또한 영국 출신이 아닌 포

105) 『The Straits Times』, 1890.8.20.

Collection

주(이전에 이 섹션에 범법 행위를 하여 죄를 선고 받은 자)가 다시 또 범법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총독인선위원회는 식민지에서 추방을 명할 수 있다. (후략)[106]

새롭게 추가된 위의 조항은 성매매 여성의 성병 검사를 직접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은 성병에 감염된 여성을 고용하는 포주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하여 포주들이 이전보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성병 검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1900년 1월 싱가포르의 스위튼햄(Frank Swettenham) 총독 대행이 영국의 식민지 장관에게 제출한 서신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소녀보호조례'를 관할한 華人保護國長(Protector of Chinese)의 보고서도 첨부되어 있는데, 그는 1899년 개정판의 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이 조례는 1899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고, 매우 만족스럽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과 10월에 본인은 직접 싱가포르의 중국인과 일본인 公娼의 포주를 인터뷰하였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그들에게 설명했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娼館에서의 성병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2. 이 인터뷰의 결과로, 모든 일본인과 중국인 포주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병에 걸린 娼婦에게 처방을 내리고, 娼館에서 제대로 치료될 수 없는 성병에 걸렸을 경우, 개인 병원이나 정부의 성병 병원으로 옮길 것을 명령할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한 서비스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3. 이 시스템은 아무런 마찰 없이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주나 娼婦 또는 의사로부터 그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불평은 없었습니다. 성병에 감염되고 병원으로 보내진 娼婦의 수는 상당했습니다. 娼婦의 전반적인 건강도 의사가 돌봅니다.[107]

상기의 보고서를 보면, '여성·소녀보호조례'의 개정으로 華人保護國長은 일본인과 중국인 포주들에게 '娼館에서의 성병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하였고, 이것은 곧 일본인과 중국인 성매매 여성이 정기적인 성병 검사를 받는 것으로

106) Great Britain Colonial Office(1906), 앞의 책, pp.4-5. (2) (3)은 생략함.
107) Great Britain Colonial Office(1906), 앞의 책, pp.18-19.

Collection

이어졌다. 이 서신에는 1899년 1년 동안 칸당 커바우(Kandang Kerbau) 병원에 성병으로 입원하였던 여성을 민족별로 제시한 자료도 첨부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1899년 칸당 커바우 병원에 입원한 여성의 수

민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유럽	-	-	-	-	-	-	-	-	-	-	-	-	-
일본	12	10	10	15	15	19	16	10	26	13	15	15	176
중국	14	1	7	6	15	13	18	19	19	14	12	3	141
말레이	2	-	-	-	3	3	2	-	-	-	1	-	11
인도	2	1	1	-	1	-	1	1	-	1	-	1	9
합계	30	12	18	21	34	35	37	30	45	28	28	19	337

(출전: Great Britain Colonial Office(1906), 앞의 책, p.20.)

위의 표에 의하면 이 병원에 입원한 일본 여성의 수는 월 평균 14.6명이었다. 1898년 싱가포르의 '카라유키상'이 약 450명이었던 것을 감안해보면 등록된 '카라유키상'의 성병 감염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에는 월 평균 입원 수가 11.7명으로 일견 '카라유키상'에 비하여 중국 여성의 성병 감염 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1899년 9월 포주들에 의하여 4개의 사립 성병 병원이 각각 주요 네 군데 유곽 구역에 설립되었고, 이들 병원들이 엄청난 수의 모든 새로운 환자들을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스위튼햄 총독 대행이 밝히고 있다. 성병에 감염된 '카라유키상'의 실태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단언할 수는 없지만, '카라유키상'과 일본 유곽은 성병 검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던 그렇지 않았던 계속하여 성병 검사를 받았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公娼制가 시행되고 있던 싱가포르에서 '카라유키상'은 그 제도 하에 편입되어 정부에 등록되고 관리되었다. 그러나 이 밖에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私娼도 다수 존재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야마무로 군페이는 1910년대 초반 싱가포르에 2천 여 명의 '카라유키상'이 존재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108]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1910년도 해협식민지정청에 등록된 '카라유키상'

108) 山室軍平, 앞의 책, pp.355-357.

dCollection

이 303명이므로 이는 무려 약 1,700명의 '카라유키상'이 私娼이었음을 의미한다.[109] 이 숫자가 확실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들 일본 私娼은 싱가포르 사회의 '위협'으로 간주되어 종종 신문 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그 한 예로 다음의 기사를 보고자 한다.

> (전략) 상당수의 소위 일본 커피숍이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유혹의 근원이 되고 있다. (중략) 몇 해전 다수의 유럽 여성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North Bridge Road와 South Bridge Road 외 주요 거리에 번창했다. 점차 이들 소위 "커피숍"은 사창을 고용하여 유럽과 유라시안 커뮤니티의 점잖은 젊은 남성들을 상당 수 고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대중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몇몇 성직자도 참여했다. 그러자 당국은 대중의 항의를 잠재울 필요성을 깨달았다. 경찰에 의해 퇴치운동이 진행되어 이들은 평판이 나쁜 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추방되었다. 역사는 지금 다시 스스로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일본 커피숍이 매춘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커피숍 중에는 틀림없이 양심적이며 실제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가게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일본 커피숍은 도시의 젊은이들을 풍기 문란케 하는 다름 아닌 덫으로, 고상한 娼館에 불과하다. (후략)[110]

이상의 기사를 보면 '커피숍'을 위장한 私娼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유럽인 중에도 있었고,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이 기사에서 싱가포르의 젊은이들 중에서도 특히 '유럽과 유라시안(유럽인과 현지인의 혼혈) 커뮤니티의 점잖은 젊은 남성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상당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私娼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1920년 싱가포르의 '카라유키상'이 廢娼한 후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 때의 私娼은 하숙집이나 호텔 등을 가장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카라유키상' 중에는 성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111]

---

109) 清水洋·平川均, 앞의 책, p.25.
110) 『The Eastern Daily Mail and Straits Morning Advertiser』 1907.4.19.
111) 『The Straits Times』, 1924.3.13., 1929.1.16., 『The Singapore Free Press and Mercantile Advertiser』, 1929.1.23., 1929.9.17.

dCollection

다음으로는 일본 유곽 안에서 '카라유키상'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그녀들이 접했던 遊客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일본 유곽의 遊客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교역의 중심지이자 자유항이었던 만큼 다양한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유입의 역사가 긴 중국인을 시작으로 하여 인도인, 동남아시아 제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민족들, 게다가 영국인을 비롯한 유럽인까지, 다음의 <표7>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싱가포르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복합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표7> 1871년 싱가포르의 민족별 인구

구분	인구	비고
Chinese	54,572	
Malay	19,250	
Kling	9,297	인도 북동부 출신
Javanese	3,239	자바인
Eurasian	2,164	유럽인과 현지인의 혼혈
Bugis	1,992	부기인
Boyanese	1,634	자바 해의 바웬 섬 출신
European	922	군인 제외
기타	4,061	일본인 외 14개의 민족으로 구분
합계	97,131	

(출전: 『Straits Times Overland Journal』 1871.8.26. 기사를 참고로 정리)

위의 <표7>은 1871년 4월 2일에 발표된 인구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인구 조사에서는 싱가포르의 인구를 크게 8개의 민족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타에만도 15개(Abyssinians, Begalees, Burmese, Cochin Chinese, Armenians, Jews 등)의 민족이 포함되어, 총 23개의 민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민족이 공존하던 싱가포르에서 '카라유키상'은 사실상 모든 남성을 상대하였다. 그 중에는 중국인과 인도인 이민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그밖

dCollection

에도 말레이인, 서양인, 일본인 유객도 있었다. 서양인의 경우 주 직종은 상업 관계자, 기업가, 장병 등으로 절대적인 수치로는 華僑나 印僑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지만 '구매력'이 높았기 때문에 상객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이들 남성들 중에는 싱가포르 거주자뿐만 아니라 여행자나 寄港 중인 상선의 선원도 있었다.[112] '카라유키상'이 받는 遊客의 특징을 민족별로 상세히 언급한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 금전에 인색한 중국인도 여자에게는 물러서, 얼마나 花街가 그들 중국인으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뜯어내었는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음에 틀림없다. 말레이인은 가지고 있는 만큼을 펑펑 쓰는 성질인 만큼 시골 손님으로서는 오히려 일본 처녀들이 비교적 좋아하는 소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의 최음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칫하면 위험하다고 여겨진 것 같다. 특히 팔렘방인은 가장 위험천만으로, 몇 해 전 3명이나 같은 花街에서 일본 처녀가 살해되었지만 결국 범인은 체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끝났다.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체격이 뛰어나게 큰 방가리, 맨발의 키링을 손님으로 받는 것도 처음에는 아주 한심하게 여겨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거짓 없는 고백이었음에 틀림없다.[113]

이 글에 의하면 '카라유키상'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다양한 민족의 남성을 손님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남성들은 대부분 상당의 돈을 일본 유곽에 쓴 것 같다. 이 글에 등장하는 '방가리'와 '키링' 각각 벵골인(Bengali)와 켈링족(Keling)으로 추정되며 모두 인도 출신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인도인들을 '체격이 뛰어나게 크다'거나 '맨발'로 표현하는 등 하찮게 여기고 있고, 말레이인이나 팔렘방인에 대해서도 '위험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글은 1938년 싱가포르의 南洋及日本人社가 출판한 것으로, 당시 동남아시아에 대한 싱가포르의 일본인의 생각이 다소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大正 시기 전반에 들어서면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가 변하고, 그에 따라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일본인의 성격 역시 크게 달라졌다. 明治 시기에는 주로 '카라유키상'이나 그들을 따라 진출한 소상인들, 혹은 육체노동

112) 清水洋·平川均, 앞의 책, p.27.
113) 南洋及日本人社, 앞의 책, p.161.

Collection

자가 주를 이루었다면 大正 시기 전반부터는 일본 경제계의 적극적인 진출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인의 멸시감이 서민층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야노 토오루(矢野暢)는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昭和기에 들어가면 동남아시아인을 '土人'이라 칭하며 그들을 모두 미개하고 우둔하고 불결한 이미지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단순명쾌한 형태로 사람들의 의식에 정착하게 된다.[114]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의 변화가 상기의 글에도 어느 정도 투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글로 '카라유키상' 본인이 遊客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충분히 파악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카라유키상'이 遊客과 하룻밤을 보내고 받는 액수 역시도 민족별로 따라 차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표8>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8> 20세기 초 일본 유곽의 요금

년도	이름	娼館의 주소	유객	금액(하룻밤)
1903	오아키	26-2 Hylam St.	독일인	5달러
1905	오세키	52 Malabar St.	말레이인	3달러
1912	오토요	28 Hylam St.	영국인	5달러

(출전: James Warren, 앞의 책, pp.396-397의 표를 가공함)

위의 표를 보면 1903년, 1905년, 1912년 '카라유키상'이 遊客과 하룻밤을 보낸 후 받은 금액은 3달러에서 5달러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독일인과 영국인이 5달러를 지불했던 것에 비하여 말레이인은 3달러를 지불한 것이다. 이것이 특수한 경우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민족별로 지불하는 금액이 달랐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풍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하룻밤에 3달러에서 5달러라는 수입은 당시 고무 플랜테이션의 화인 노동자의 연수입이 24달러에서 42달러 인 것과 비교하여 보면 상당한 고액임에는 틀림없다.[115] '카라유키상'은 이민노동자에 비해 월등히 수입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

114) 矢野暢(1979), 앞의 책. p.152.

dCollection

나 통상 포주와 수입을 절반으로 나누었고,[116] 포주는 상인들과 결탁하여 '카라유키상'에게 기모노, 화장품, 가구, 침대보 등을 비싼 가격에 강매하였다. 게다가 한 달에 한번 받는 성병 검사 비용인 5달러도 '카라유키상'이 부담해야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수입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예상된다.[117]

'카라유키상'이 싱가포르에서 여러 민족, 여러 계층이라 할 것 없이 다양한 遊客을 받은 것은 중국 유곽이 오직 중국인만을 상대로 했던 것과 크게 비교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18] 일본 유곽이 다양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중국인과 달리 자국의 남성이 많지 않았다는 점,[119] 유럽 성매매여성의 廢娼으로 유럽인의 수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들이 성병 검사에 큰 저항 없이 응했던 것과 같이 싱가포르의 '신입자'였기 때문에 기반을 잡기 위한 것 등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상기에서 '카라유키상'이 싱가포르의 다양한 遊客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이와 반대로 싱가포르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카라유키상'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일본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사건을 참고해보고자 한다. 1890년대 후반,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는 '유럽인, 동양외국인, 토착민'의 삼층으로 된 히에라르키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확립되어 있었다. 그 복합적인 질서 속에서 일본인은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 등과 함께 '동양외국인'의 범주에 들어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경악한 후지타 토시로(藤田敏郎) 영사는 자바에 체류 중인 네덜란드령 동인도 총독에게 일본인의 법적 지위를 유럽인과 동등하게 끌어올리도록 강하게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는 1899년 5월 '네덜란드령 동인도 行政處務規程'의 수정에 의해 일본인은 유럽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기타 열강 식민지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본인의

115) James Warren, 앞의 책, p.396, 清水洋·平川均, 앞의 책, p.39.
116) 宮下琢磨, 앞의 책, p.44.
117) 『The Straits Times』, 1890.8.20.
118) 홍콩의 일본 유곽의 경우에는 서양인만을 받는 곳과, 서양인과 일본인을 받는 곳의 두 종류가 있었고, 중국인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 (『鎭西日報』 1907.8.23.)
119) 1903년 재싱가포르 일본 여성은 769명이었던 것에 비해 남성의 수는 179명에 불과했다. (清水洋·平川均, 앞의 책 p.25)

Collection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고토 켄이치(後藤乾一)는 밝히고 있다.[120]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일본인에 국한되는 것으로 '카라유키상'은 예외였던 것 같다. 1903년 3월 『The Straits Times』에는 한 일본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일본인 여성을 조롱하는 세태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 기사가 실려 있다.

> "Straits Times"의 편집장 귀하,
> 편집장님, 싱가포르의 일본인 거주자로서 많은 존경받는 일본인 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호소할 수 있게 지면을 조금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일본 여성이 일본 의상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 많은 쿨리와 그들뿐만이 아니라 경찰들에게도 역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며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 부인이 유럽식 드레스나 사롱과 카바야(말레이 및 인도네시아의 의상-박경은)를 입으면 경찰이나 쿨리 모두 추행하거나 참견하거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여성은 娼婦가 아니라 어떤 외국인이 데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는 많은 수의 점잖은 일본 여성들이 그들이 당할 욕설 때문에 일본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머무르거나 유럽이나 말레이 옷을 입고 나갑니다. 쿨리들의 욕설도 충분히 나쁩니다만, 경찰의 욕설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멈추기 위한 무언가가 행해져야합니다. 이것을 귀 신문에 기재해주기를 희망하며, 타츠노 야마나츠 올림
> 싱가포르 3월 9일.[121]

이 기사는 1899년 경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인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고, 청일전쟁의 승리와 영일동맹으로 인하여 일본인의 대외적 위신이 향상되었더라도 '카라유키상'에 대한 인식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 유곽을 찾은 남성 중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이민노동자들도 '카라유키상'을 멸시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였음도 알 수 있다. '외국인이 데리고 있는' 일본 여성이라 함은 곧 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의 첩이 된 일본 여성은 일반적인 娼館에 고용된 여성과는 달리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120) 後藤乾一, 『近代日本と東南アジア』, 岩波書店, 1995, pp.8-9.
121) 『The Straits Times』, 1903.3.09.

dCollection

는 점 또한 흥미롭다.

이상으로 '카라유키상'이 싱가포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1870년대 처음 싱가포르로 도항해 온 '카라유키상'은 본래 유럽인의 주거지였던 싱가포르 동남부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20세기 초두 점차 수가 증가하여 이곳에 '스테레츠'라 불리는 일본 유곽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 '카라유키상'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홍콩 도심지의 廢娼도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이 싱가포르와 관계된 여러 지역과 '카라유키상'의 이동과의 연관성은 추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싱가포르 식민 정부가 성매매의 관리를 위해 시행한 제도에 '카라유키상'과 일본 유곽은 큰 저항 없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순응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카라유키상'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라유키상'은 중국인 성매매 여성과는 달리 다양한 민족의 남성을 遊客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또한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싱가포르에서 '카라유키상'의 유입이 허용되는 이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

V. 결론

이상으로 '카라유키상'이 출현하는 배경을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녀들이 해외로 도항하는 과정과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의 유곽에서의 실태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하여 알아보았다.

'카라유키상'의 출현 배경과 관련하여 '이에' 제도와 그 속에서 여성의 역할,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본의 대외 인식을, '카라유키상'의 주요 출신지였던 九州 북서부 지역의 지리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상황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왜 그녀들을 필요로 하였는지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카라유키상'은 대체로 일본의 저변 여성사에 위치하며 일본의 해외 진출의 희생양으로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녀들이 고향을 떠나 먼 이국의 땅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것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라유키상'이 일본에서부터 해외의 한 거점지까지 이동한 네트워크는 러일전쟁 전후부터 1910년대에 걸쳐 상당히 조직화 되어있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長崎, 門司, 神戸 등의 중심지를 연결 고리로 하여 九州, 関西, 広島 등지까지 넓게 뻗어있었다. 그 중 長崎는 '카라유키상'의 주요 출신지이자 여성 인신매매업자들의 근거지이며 또한 그녀들이 주로 송출되는 港으로 '카라유키상'이 이동한 네트워크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네트워크 속에서 '카라유키상'은 상당히 다양한 밀항의 방법을 통하여 이동하였고, 그 중에는 '카라유키상'을 수동적인 희생양으로서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카라유키상'이 이동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인신매매업자나 그 부하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때 '카라유키상'이었던 여성이 나이가 들자 직접 포주가 되어 소녀들을 모집하는 사례를 보았는데, 이것은 '카라유키상'이 남성에 의한 폭력 하에 놓인 존재이기도 하였지만 피해자였던 '카라유키상'이 가해자가 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구조에도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기의 과정과 구조 속에서 '카라유키상'은 영국의 식민지이자 자유무역항으로

dCollection

서 번성하기 시작한 싱가포르로 도항하였고, 그 곳에 일본 유곽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녀들은 싱가포르의 식민 모국인 영국의 공창제에 편입되어 관리를 받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종 '카라유키상'은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로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카라유키상'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싱가포르와 같은 지역에서 그녀들을 허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싱가포르에서 '카라유키상'은 민족의 구분 없이 모든 남성을 상대하였기 때문에, 극심한 성비불균형 사회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그녀들의 존재를 허용하였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다.

싱가포르에서 생활한 '카라유키상' 중에는 나이가 든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 싱가포르에 남아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자도 있었다. 일부는 싱가포르를 발판으로 삼아 또 다른 제국의 해항도시로 재 이동 하기도 하였다. IV장에서 살펴본 홍콩 유곽의 廢娼과 싱가포르의 '카라유키상'의 증가가 바로 이러한 해항도시 간의 '카라유키상'의 이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카라유키상'이 주요 활동 했던 여러 지역, 특히 당시 제국의 주요 해항도시 간의 연동성에 보다 집중하여 추후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마닐라, 바타비아(자카르타) 등은 모두 일본 유곽이 발달한 대표적인 곳으로,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규명은 '카라유키상'을 키워드로 하는 광역적 역사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ollection

참고문헌

<단행본>

다카사키 소지 저, 이규수 역, 『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2006.
스즈키 마사유키 저, 류교열 역,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2005.
스즈키 유코, 이성순·한예린 역,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젠더』, 나남, 2010.
시라이시 다카시 저, 류교열·이수열·구지영 역, 『바다의 제국』, 선인, 2011.
하네다 마사시 저, 이수열·구지영 역,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선인, 2012.
후지메 유키 저, 김경자·운경원 역, 『성의 역사학』, 삼인, 2005.
石井米雄 外, 『東南アジアを知る事典』, 平凡社, 2008.
可児弘明, 『近代中国の苦力と「豬花」』, 岩波書店, 1979.
金一勉, 『日本女性哀史　遊女·からゆき·慰安婦の系譜』, 徳間書店, 1980.
後藤乾一, 『近代日本と東南アジア』, 岩波書店, 1995.
清水洋·平川均, 『からゆきさんと経済進出』, コモンズ, 1998.
清水元, 『アジア海人の思想と行動』, NTT出版株式会社, 1997.
白石広子, 『長崎出島の遊女』, 勉誠出版, 2005.
村岡伊平治, 『村岡伊平治自傳』, 南方社, 1960.
森克己, 『人身売買』, 至文堂, 1959.
森崎和江, 『からゆきさん』, 朝日新聞社, 1977.
ロバート·ホーム編, 『植えつけられた都市』, 布野修司·安藤正雄·アジア都市建築研究会 譯,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1.
矢野暢, 『「南進」の系譜』, 中央公論者, 1975.
_____, 『日本の南洋史観』, 中央公論社, 1979.
山崎朋子, 『サンダカン八番娼館』, 文藝春秋, 1987.
James Warren, 『Ah ku and karayuki-san: prostitution in Singapore, 1870-1940』,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Japanese Association Of Singapore, 『Prewar Japanese Community In Singapore: Picture & Record』, Heritage Committee of the Japanese Association, 1998.

dCollection

<사 료>

岡島真七, 『諸罰則概表』, 大阪裁判所 編, 1878.

長崎県史編纂委員会, 『長崎県史 近代編』, 吉川弘文館, 1976.

南洋及日本人社, 『南洋の五十年 - シンガポールを中心に同胞活躍』, 章華社, 1938.

宮田伝之助, 『外国旅券移民渡航出願の手続』, 堀田航盛館, 1913.

宮下琢磨, 『邦人活躍の南洋』, 岡田日藤堂, 1929.

山室軍平, 『社会廓清論』, 警醒社書店, 1914.

吉岡利起, 『マレーの實相』, 朝日新聞社, 1942.

『福澤諭吉全集』 第15卷, 岩波書店, 1931.

『移民保護法及施行細則』, 外務省通商局第二課, 1896.

Great Britain Colonial Office, 『Ordinances relating to Contagious diseases ordinances』, Henry Hansard and Son, 1886.

Great Britain Colonial Office, 『Straits Settlements, Hong Kong, Gibraltar further correspondence relating to measures adopted for checking the spread of venereal disease』,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by Darling&Son, 1906.

<논 문>

송연옥, 「대한 제국기의 <기생단속령><창기단속령>」, 『한국사론』, 40, 1998.

양미숙, 「개항기~1910년대 부산의 유곽 도입과 정착과정」, 『지역과 역사』, 24호, 2009.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 조선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김영, 「일본의 '이에(家)'와 여성」, 『일본연구논집』 제28호, 2008.

____, 「일본 중세 성매매에 대한 고찰」, 『동북아 문화연구』 제10집, 2006.

鈴木裕子, 「からゆきさん · 「従軍慰安婦」 · 占領軍「慰安婦」」, 『近代日本と植民地 5』, 岩波書店, 1993.

嶽本新奈, 「 「からゆき」という歴史事象創出の背景:「性的自立性」の多様

Collection

性」」, 『言語社会』 第2号, 2008
藤永壮, 「植民地公娼制度と日本軍「慰安婦」制度, 『植民地と戦争責任』, 吉川弘文館, 2005.
安田利枝, 「「からゆきさん」再考」,『嘉悦女子短期大学研究論集』, 第35巻 第2号 通巻62号, 1992.
Hiroshi Shimizu, 「Karayuki-.san and the Japanese economic advance into British Malaya, 1870-1920」, 『Asian Studies Review』, Vol.20, No.3, 1997.
Motoe Terami-Wada, 「Karayuki-san of Manila: 1890-1920」, 『Philippine Studies』, vol.34, no.3, 1986.
Ng, Siew Yoong, 「Chinese Protectorate 1877-1900」,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Malaya, 1955.
YK Lee, 「Prostitution and venereal disease in early Singapore(1819-1889)」, 『Singapore Medical Journal』 Vol. 21, No. 5, 1980.
Loke Tuck Whye, 「The control of contagious diseases in colonial Singapore 1867-1959」, Department of histor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900/91.

<신문자료>

『鎮西日報』
『The Straits Times』
『The Daily Advertiser』
『Eastern Daily Mail and Straits Morning Advertiser』
『The Singapore Free Press and Mercantile Advertiser』

<기 타>

西原大輔, 「日本人のシンガポール体験(1) 夏目漱石のシンガポール観光」, 『シンガポール』, 2000年 1号, 2000.
『日本史辞典』, 角川学芸出版, 2007.
싱가포르 국립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a2o.nas.sg)

Collection

부록

(부록1)

Ordinance, No. XXIII of 1870.

An Ordinance to prevent the Spread of certain Contagious Diseases.

[1st December 1870.]

6. Any keeper of a licensed brothel, who shall have re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any woman an inmate of his brothel is affected with a contagious disease shall forthwith give notice thereof to the visiting surgeon, and such licensed brothel keeper shall not permit such inmate to prostitute herself within such brothel until she has been medically inspected by the visiting surgeon; and any brothel keeper omitting so to give notice to the registering officer, and any woman continuing to prostitute herself before such examination,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Ordinance.
7. If any person shall be prov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registering officer to have been infected with a contagious disease in a licensed brothel the keeper thereof shall be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50 dollars, and the inmate thereof who shall have infected such person shall be liable to a fine of not exceeding 50 dollars or to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hard labour for any period not exceeding three months or to both. And if any person shall, to the satisfaction of the registering officer, be proved to have infected with contagious disease the inmate of any licensed brothel, such person shall be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fifty dollars, or to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hard labour for any period not exceeding three months, or to both.
13. Every inmate of a licensed brothel shall be liable at all times to

Collection

medical examination by a visiting surgeon in such brothel, or at such hospital as he shall direct, subject to any rules to be framed by the Governor for the conduct of the duties of visiting surgeons.

14. Any woman may voluntarily, by a submission in writing signed by her in the presence of and attested by the registering officer, subject herself to a periodical medical examination under this Ordinance for a period of one year, subject to such Rules as the Governor may order as to the places and times of her examination.

15. When, after any medical examination under the Ordinance, a woman is declared by a visiting Surgeon to be infected with contagious disease, such surgeon shall forthwith draw up and sign a certificate in the form of Schedule(A), and shall direct the woman to be forthwith taken to and hospital, where she will be detained till discharged by an order in form of Schedule (B) to be signed by a visiting surgeon.

16. It shall be lawful for any police officer of the rank of deputy inspector at least, to take into custody without warrant, and to convey or cause to be conveyed to the hospital, any woman against whom a certificate in the form of Schedule(A), has been made.

41. In this Ordinance the expression "Contagious Diseases" means "Venereal Disease including Gonorrhoea". "Brothel" means any house or place occupied or used by any woman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Keeper of a licensed Brothel" means the Registered Keeper therof, and any person acting as manager thereof during the absence of the Keeper. "Inmate of a licensed Brothel" or "Inmate of a Brothel" means any woman residing in such Brothel or found therein at any time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전문은 Great Britain Colonial Office, 『Ordinances relating to Contagious diseases ordinances』, Henry Hansard and Son, 1886, pp.85-91 참조.)

Collection

(부록2)

Ordinance No. XVII of 1896.

An Ordinance to consolidate and amend the Law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Women and Girls and for the Suppression of Brothels.

[1st December 1870]

Part I. OFFENCES AGAINST WOMEN AND GIRLS.

4.-(1) Any person who -

(i) sells lets to hire or otherwise disposes of or buys hires or otherwise obtains possession of any woman or girl with intent that such woman or girl shall be employed or used for he purpose of prostitution either within or without the Colony or knowing it to be likely that such woman or girl will be so employed or used;

(ii) procures or attempts to procure any girl under sixteen years of age or any woman or girl above that age not being a common prostitute or of known immoral character to have either within or without the Colony carnal connection except by way of marriage with any other person or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either within or without the Colony or who by or under any false pretence false representation or fraudulent or deceitful means (whether such pretence presentation or means be made or used within or without the Colony) brings or assists in bringing into the Colony any woman or girl with intent that such woman or girl shall be employed or used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either within or without the Colony or knowing or having reason to believe it likely that such woman or girl will be so employed or sued;

(iv) detains any woman or girl in a brothel against her will; or detains any woman or girl in any other place against her will with intent that she may practice prostitution or for any unlawful and immoral

Collection

purpose;

(v) unlawfully and carnally knows any girl of or under the age of fifteen years;

(vi) attempts to commit any offence in this section mentioned shall on conviction before the Supreme Court or a Court of two Magistrates be liable to imprisonment of either description for a term not exceeding one year or to a fine not exceeding five hundred dollars or to both.

(전문은 Ng, Siew Yoong, 「Chinese Protectorate 1877-1900」, Dept. of History, University of Malaya, 1955, 부록 J 참조.)

dCollection